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12

December 2016 vol.141



이달의 이슈

2017년 서울 경제 트렌드



생생리포트

서울 혁신지수
(Seoul Innovation Index)



인포그래픽스

서울 외국인 근로자의 69.8%가
한국계 중국인



경제동향

요약/고용/생산/소비/물가
부동산/금융/수출입



경제통통

FOCUS/ZOOM IN/HOT ISSUE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서울경제

발행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김수현 (서울연구원장)

연구책임 조달호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연구진 최윤진(연구원), 이준영(연구원)

편집위원 서울연구원

최봉(연구위원), 김범식(연구위원), 김묵한(연구위원)

서울시 경제정책과

김태희(과장), 박주선(팀장), 나성조(주무관)

발행일 매월 말

발행처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

주소 (우06756)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서초동 391번지)

전화 (02)2149-1233

팩스 (02)2149-1289

홈페이지 www.si.re.kr

*본 간행물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달의 이슈

- 06 | 2017년 서울 경제 트렌드
조달호(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장윤선(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前연구위원)
최윤진(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김보연(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생생리포트

- 26 | 서울 혁신지수(Seoul Innovation Index)
조달호(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최윤진(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인포그래픽스

- 48 | 서울 외국인 근로자의 69.8%가 한국계 중국인
조달호(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장윤선(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前연구위원)

경제동향

- 54 | 요약
55 | 고용
59 | 생산
61 | 소비
62 | 물가
63 | 부동산
66 | 금융
72 | 수출입
최윤진(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경제통통

- 72 | FOCUS / ZOOM IN / HOT ISSUE
고태경(서울특별시청 경제진흥본부)





이달의 이슈

2017년 서울 경제 트렌드

- I. 2017년 서울 경제 트렌드
- II. 서울시민의 생활 트렌드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조달호 선임연구위원 dhcho@si.re.kr

장윤선 前연구위원 changys@si.re.kr

최윤진 연구원 erdene@si.re.kr

김보연 연구원 bykim@si.re.kr

2017년 서울 경제 트렌드

I. 2017년 서울 경제 트렌드

1. 국내·외 경제 전망

1) 세계 경제 전망

- 2017년 세계 경제 키워드는 ‘저성장’과 ‘보호주의’
 - 선진국 경제는 경기 부진 장기화로 제조업 일자리 부족과 누적된 소득 불평등 확대에 따른 불만이 표출되고, 난민 및 테러 문제 등으로 극우정당 지지율이 높아지는 등 자국중심주의가 심화
 - 신흥국 경제도 이에 맞대응하면서 국가 간 통합이 약화되고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는 등 반세계화 경향이 확대되어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통상 마찰도 커질 전망
 - 이 같은 분위기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고 세계 교역을 더욱 위축시켜 한국의 수출 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미국은 제조업 활성화, 인프라 투자 등을 목표로 한 대규모 확대 재정 정책 예상
 - 새 행정부 출범으로 감세 정책과 대규모 재정부양책 시행이 예상되는데, 이로 인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과 경제성장세 확대, 국채발행 증가 등은 미국의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미국의 경기 호조는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이나 통상 마찰 우려 때문에 수출 확대에 이어지기 어려운 한편, 미국의 금리 상승은 국가 간 금리 동조화 현상에 따라 국내 시장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하고 서민 가구에 타격 우려
 - 트럼프는 미국 내 일자리 감소, 소득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가 무역

자유화에 따른 영향이라고 인식해 해외 생산 제품에 높은 관세 부과를 언급하고 있으며, 기존 무역협정에도 재협상 의지를 밝힌 만큼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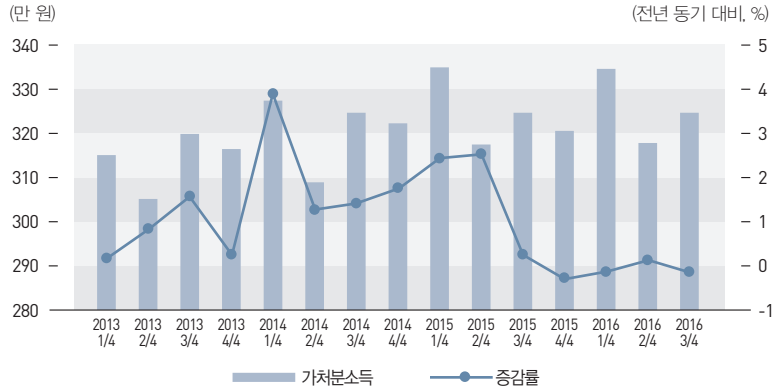
- 유럽은 영국의 브렉시트 진행과정과 EU 주요 회원국의 선거 결과에 따라 브렉시트의 파급효과가 좌우될 전망
 - 영국의 메이 총리는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EU 탈퇴의사를 내년 3월말 전에 전달하겠다고 밝혔고, 내년 상반기 중 영국의 EU 가입을 규정한 ‘유럽공동체법’을 폐지하는 법안 상정 추진
 - 프랑스 대통령 선거(2017년 4월), 독일 총선(2017년 4월), 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2016년 12월) 및 총선(2018년 3월)에서 반 EU 세력이 승리할 경우 추가 EU 탈퇴국 발생 우려
 - 브렉시트 파급효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유럽지역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재정여력이 있는 독일을 중심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 늘고 있으며 주요국들이 선거를 앞두고 있어 경기부양 가능성도 상존
- 중국은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 안에서 경제 운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부채 리스크 및 과잉생산 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성장률이 올해보다 소폭 하락 전망
 - 과잉생산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기존의 투자, 수출,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 소비, 내수, 서비스업 위주의 경제로 목표를 전환함에 따라 산업 구조조정의 성공여부가 향후 중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인프라 투자 등 확대재정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지방정부 및 기업부채 리스크 증대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통화정책이 전망됨
 - 중국 경제가 내수 중심, 서비스업 위주의 성장을 표방해 기존 교역 패턴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중국 내수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해 수출 패러다임을 개선할 필요

- 일본은 미국의 금리 상승과 유가 회복 등 긍정적인 경제 지표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
 - 몇 년간의 부양책에도 경기회복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못했으며, 엔화 약세 유도에도 글로벌 금융 불안 국면마다 엔고 현상이 반복됨. 일본 정부는 재정건전성 부담으로 공격적인 재정지출 확대에 나서기는 어려워 경기 하강을 막는 정도의 재정정책 예상
 - 한편 트럼프 당선에 따른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감산 합의로 저물가 문제도 해결될 것 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엔고와 디플레이션으로 고전했던 일본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
 - 미국 경제 성장이 탄력을 받으면 일본의 수출에도 개선이 기대되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폐기 시 일본의 수출 확대 정책과 구조조정에 일부 차질이 있을 예상

2) 국내 경제 전망

- 2017년 한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2% 수준에 머물 전망
 -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국내 수출 경기의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은 결과적으로 국내 금리 인상을 유발해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위축
 - 2016년 경기 부양책의 한 축이었던 민간소비는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① 종료로 소비 증가율이 낮아질 전망이며, 또 다른 한 축인 건설투자도 주택 공급과잉 우려에 따른 신규 분양 감소로 성장세 축소 전망
 -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세에 진입함에 따라 국내 경제의 생산과 소비 활력이 떨어지고, 노동력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로 성장세 하락이 계속되면서 저성장 우려 확대 예상
- 국내 정세 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실질소득 정체로 가계부문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둔화 전망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5.8로 2015년 6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직후인 98.8보다 낮게 나타남
 - 가치분소득 증가가 부진한 데다 연내 가계부채의 원금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비여력을 제약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소비심리 개선 지연
 - 2016년 3분기까지 시행된 개별소비세 인하로 내구재 소비가 증가해 2017년에 비슷한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소비 진작 효과는 올해보다 작을 것으로 분석

^① 정부는 2015년 3/4분기부터 2016년 3/4분기까지 개별소비세 감면, 가전 보조금 정책, 대규모 할인행사 개최 등의 소비활성화 정책을 추진



주 전국 2인 이상 실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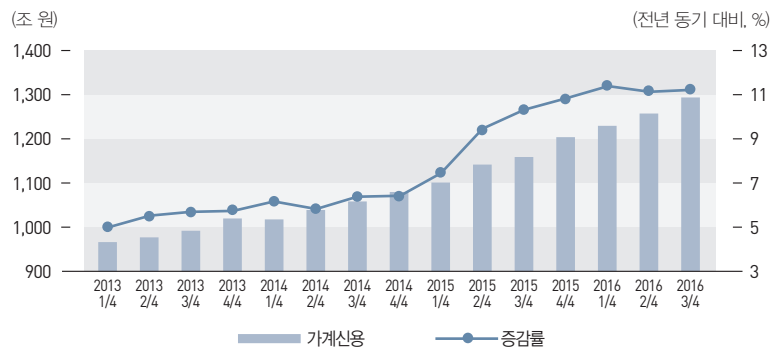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구당 월평균 가계소득

〈그림 1〉 가구당 월평균 가처분소득 추이

- 미국 금리 상승은 국내의 시중 금리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가계에는 채무부담을 증가시키고, 기업의 투자 손실 발생과 투자 위축 초래 우려
 - 2015년 하반기 이후 가계신용의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금리 상승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하고 기업의 투자를 위축할 우려
 - 전국의 가계부채 한계가구 규모는 약 134만 가구^②로 집계되며, 자영업자의 금융부채 비중은 상용근로자보다 1.5배가량 높아 향후 금리 상승이 가계부채 한계가구와 자영업자에 부담으로 작용해 더욱 근본적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 조치 필요

^② 2016년 6월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 전국의 가계부채 한계가구는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 (1,072만 가구)의 12.5%에 해당하는 134만 가구로 집계

- 가계부채 한계가구 :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아 금융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이고,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40%를 넘는 가구를 의미



주 가계신용 잔액 말잔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2〉 국내 가계신용 추이

- 기업부문의 설비투자는 소폭 늘어날 전망이며, 건설투자는 성장세 축소 예상
 - 설비투자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만큼 기저효과로 내년에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세계 경기 회복 부진 시 2015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
 -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0%대 초반에 그쳐 대규모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기존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이 예상됨에 따라 설비투자 확대가 어려울 전망
 - 건설투자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 확대로 공급조정이 예상되며, 중앙정부의 토목 관련 SOC 예산 규모도 축소됨에 따라 내년에는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낮아질 전망

- 원/달러 환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며, 소비자 물가는 저물가 기조 유지 예상
 - 미국발 금리 상승과 유럽 및 신흥국 경제 불안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달러 강세가 예상되나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달러 약세 유인도 상존
 - 공급 측 요인인 국제 유가의 회복세로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되나 저성장으로 총수요 압력이 크지 않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안정된 수준에 머물 전망
 - 2017년에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간 인상이 미뤄졌던 기타 공공요금의 인상과 전세가격 상승은 기타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 세계경기의 하향 및 제조업 교역 위축 현상 지속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은 축소 전망
 - 경상수지는 흑자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으로 상품수지 흑자폭 축소, 해외여행객 증가 및 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로 경상수지 흑자폭은 줄어들 전망
 - 미국, 유럽 등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등 신흥국에서도 무역제재가 확산되는 등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국내 제조업 분야 수출 품목의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한·미 FTA 등 미국발 통상마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2. 서울 경제 전망

- 서울의 경제는 내수 부진으로 2% 초반의 성장률이 예상되나, 국내외 불확실성 증대 시 더 심한 정도의 경기 침체가 우려됨
 - 서울은 경상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미국발 금리 상승 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내수 불황과 소득 침체 요인도 민간소비 증가율 둔화에 일조
 - 서울은 제조업 비중이 낮아 세계 경제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더라도 실물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않겠지만 가계의 소비심리와 기업의 투자심리를 통한 경기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서울의 건설투자도 둔화가 예상됨
- 서울은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경상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10월 기준 서울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0.8%, 12.1% 늘어나 최근 서울의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
 -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가계부채의 질도 악화 추세

〈표 1〉 서울의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추이

	2015년 1분기	2015년 2분기	2015년 3분기	2015년 4분기	2016년 1분기	2016년 2분기	2016년 3분기
주택담보 대출 비중(%)	63.8	63.2	63.7	64.0	63.9	64.1	64.5
예금은행 대출 비중(%)	86.0	85.8	85.7	85.4	84.8	84.6	84.4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대출 비중(%)	14.0	14.2	14.3	14.6	15.2	15.5	15.7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가구당 평균 가계부채는 전년(9,425만 원) 대비 2.6% 증가한 9,671만 원으로 전국(6,655만 원) 평균보다 45% 많음
- 매년 지속적으로 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를 웃돌고 있으며, 경상소득(5,357만 원) 대비 부채 비중이 180.5%로 전국(136.3%) 대비 크게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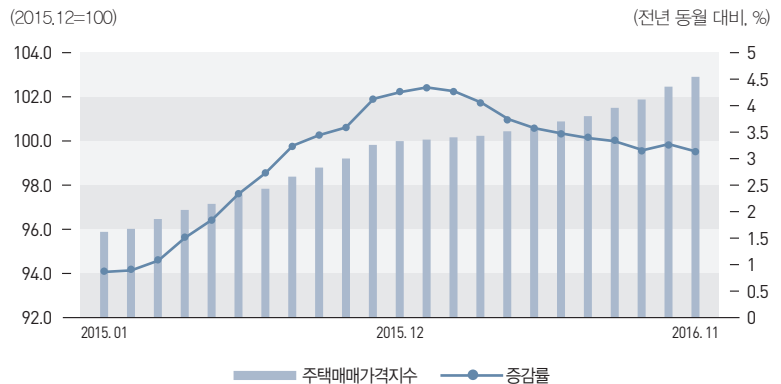
〈표 2〉 서울의 가구당 평균 가계부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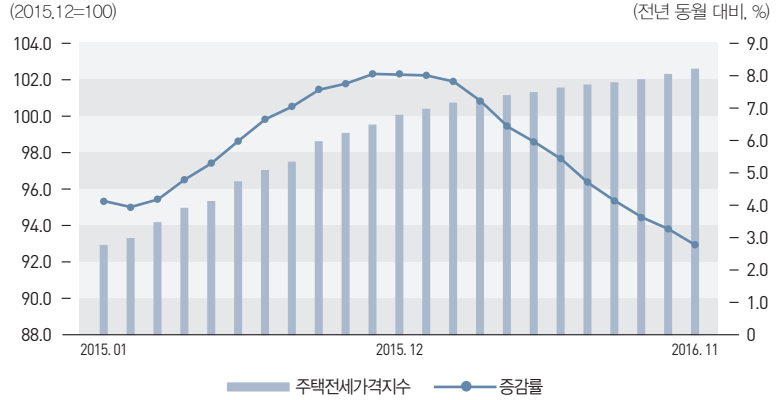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가계부채 (만 원)	8,263	8,596	8,924	9,425	9,671
전년 대비 증가율(%)	-	4.0	3.8	5.6	2.6
경상소득 (만 원)	4,855	4,923	5,034	5,253	5,357
전년 대비 증가율(%)	-	1.4	2.2	4.4	2.0
경상소득 대비 부채(%)	170.2	174.6	177.3	179.4	180.5

주 2016년은 추정치,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2년부터 발표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서울의 주택시장은 전국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이지만 금리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침체 가능성
 - 2016년 11월 기준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주택전세가격지수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3.1%(전국 1.5%), 2.8%(전국 1.8%) 상승
 - 매매가격 상승폭은 3% 수준의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 전세가격 상승폭은 급격히 축소 중
 - 내년 금리 인상 폭이 크고, 2017년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여파가 나타난다면 부동산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서울도 부동산 시장 침체 가능





자료: KB국민은행

〈그림 3〉 서울의 주택 매매/전세가격지수 추이

3. 서울의 산업·고용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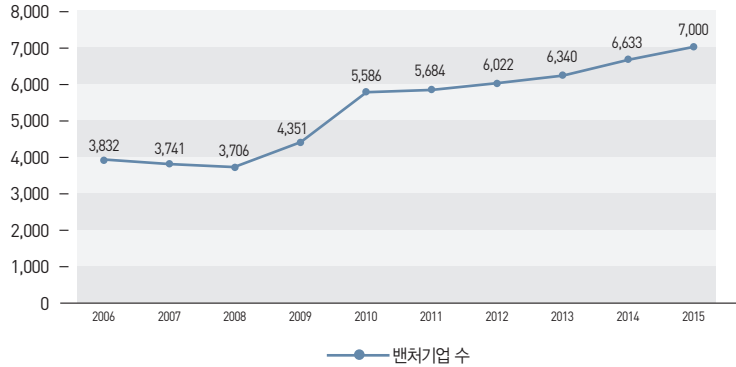
- 서울은 IT 및 콘텐츠 관련 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 서울에서 사업체 수가 많은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이지만 모두 사업체 수 증가가 정체된 상태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같이 IT 및 콘텐츠 관련 산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같이 인구밀집 도심지역에 필요한 산업은 빠른 속도로 증가
 - 반면 제조업은 감소하여 서울의 산업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표 3〉 서울 산업별 사업체 수, 비중, 연평균 증감률

[단위: 개, %]

주요 산업	2006년		2014년		연평균 증감률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제조업	63,829	8.7	61,218	7.5	-0.5
도매 및 소매업	217,653	29.7	233,196	28.7	0.9
운수업	93,740	12.8	95,128	11.7	0.2
숙박 및 음식점업	116,017	15.8	126,557	15.6	1.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490	1.7	22,663	2.8	7.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2,621	3.1	37,599	4.6	6.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807	1.2	13,764	1.7	5.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553	2.5	26,224	3.2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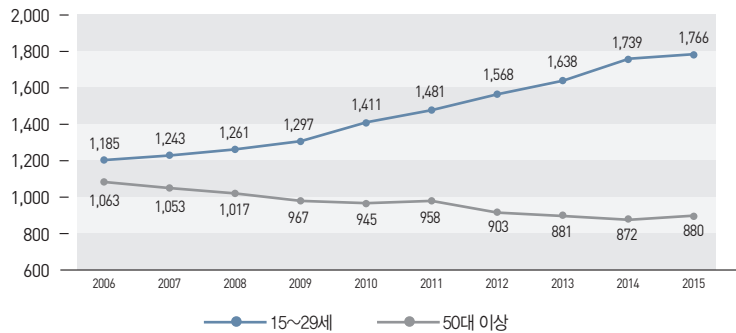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벤처인

〈그림 4〉 서울의 벤처기업 수

- 서울의 벤처기업에서도 IT 및 콘텐츠 관련 사업체 성장 추세 지속 예상
 - 서울의 벤처기업은 2015년 7,000개로 2006년보다 1.8배 증가했으며, 벤처자본 투자금액도 2조 3,831억 원으로 2006년보다 2.2배 증가
 - 현재 서울의 벤처기업 사업체는 정보처리 및 S/W 분야에 가장 많고 전국 대비 비중도 61.4%로 높았으며, 2017년에도 이 분야 중심의 성장세 지속 예상



자료 경제활동인구, 통계청

〈그림 5〉 서울의 청년층 및 50대 이상 취업자 수

- 청년층과 중·고령층 간 고용시장 양극화 지속 예상
 - 서울 50대 이상 취업자는 2015년 176.6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서울 취업자의 34.4% 차지
 - 이는 당초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노후준비를 위해 일터에 머무는 중·고령층이 늘어난 것에 원인
 - 청년층 취업자(15~29세)는 2015년 88만 명으로 꾸준히 감소하여 2017년에도 고용시장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표 4〉 서울 중사상 지위별 청년층 및 50대 이상 취업자 수

중사상 지위별	15~29세		50대 이상		전체		
	취업자 수	서울에서 비중	취업자 수	서울에서 비중	취업자 수	비중	
임금 근로자		809,760	20.1	1,177,622	29.2	4,026,788	78.4
	상용근로자	500,696	19.2	565,372	21.7	2,605,578	50.7
	임시근로자	262,843	23.9	436,331	39.7	1,098,206	21.4
	일용근로자	46,221	14.3	175,919	54.5	323,004	6.3
비임금 근로자		56,551	5.1	582,412	52.5	1,110,133	21.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9,970	2.9	163,072	48.0	339,650	6.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6,008	5.9	329,186	54.2	606,863	11.8
	무급가족종사자	10,573	6.5	90,154	55.1	163,620	3.2
전체		866,311	16.9	1,760,034	34.3	5,136,921	100.0

주 시·도별 가중치 부여

자료 지역별 고용조사(2015 하반기), 고용노동부

- 50대 이상 취업자는 대부분 일용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
 - 서울 일용근로자의 54.5%가 50대 이상이며, 임시근로자의 비중도 39.7%로 높은 반면, 청년층 일용근로자 및 임시근로자 규모는 50대에 비해 작은 편
 - 서울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인 것에 비해 청년층 자영업자 수는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서울 산업별 청년층 및 50대 이상 취업자 수

주요 산업	15~29세		50세 이상		서울 전체 취업자 수
	취업자 수	서울에서 비중	취업자 수	서울에서 비중	
제조업	67,667	13.4	176,227	34.9	504,812
건설업	18,496	5.9	151,284	48.0	315,313
도매 및 소매업	175,241	18.3	309,964	32.4	955,249
운수업	16,376	6.4	144,276	56.6	254,997
숙박 및 음식점업	111,769	25.2	163,900	36.9	443,616
부동산업 및 임대업	8,058	5.4	84,438	56.6	149,15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7,086	22.8	61,976	16.2	382,39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1,411	11.9	139,440	52.7	264,500
교육 서비스업	83,199	19.6	96,099	22.6	424,33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3,776	22.9	100,445	31.1	322,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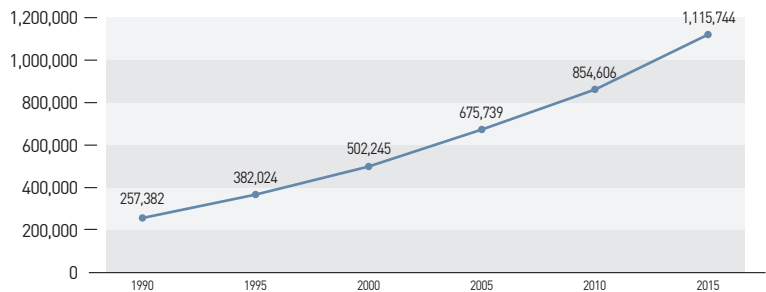
자료 지역별 고용조사(2015 하반기), 고용노동부

- 50대 이상 취업자와 청년층 취업자가 주로 종사하는 산업 분야는 서로 다른 것으로 분석됨
 - 서울에서 사업체 수가 많은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 위 산업을 제외하고 서울의 5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산업은 건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특히, 운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주로 생계형 일자리인 것으로 추정
 - 청년층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로 나타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산업에 많이 종사

II. 서울시민의 생활 트렌드

1. 1인 가구 중심 생활 문화의 확산

- 세계적인 트렌드와 함께 서울도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세계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싱글라이제이션(Singlization)’이라고 부르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
 - 서울도 1인 가구가 1990년에는 25만 명(전체 가구의 9.1%)으로 규모가 매우 작았으나, 2015년 현재는 약 112만 명으로 서울 가구의 28.5%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
 -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젊은 세대의 결혼관 변화, 교육으로 인한 기러기 가족 증가, 이혼·별거와 같은 가족 해체,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독신가구 증가 등으로 다양



자료: 인구총조사(각 연도), 통계청

〈그림 6〉 서울 1인 가구 증가 추세

〈표 6〉 2015년 서울 1인 가구 비중

서울 전체 가구 수	서울 1인 가구 수	1인 가구 비중
3,914,820	1,115,744	28.5

자료 인구총조사(2015), 통계청

- 서울에는 20~30대의 젊은 1인 가구가 유달리 많은 것이 특징
 - 서울은 다른 시·도에 비해 20~30대의 1인 가구 규모가 큰 편
 - 서울에서 초혼 연령은 남자 32.2세, 여자 29.8세로 나타나 결혼이 늦어지고, 혼자 사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이런 트렌드에 맞춰 젊은 1인 가구를 겨냥한 제품 및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추세

〈표 7〉 2015년 서울 연령별 1인 가구

	서울	전국	전국 대비 서울 비중
합계	1,115,744	5,203,440	21.4
20대 미만	13,721	58,020	23.6
20대	258,478	887,023	29.1
30대	263,207	953,322	27.6
40대	176,888	849,758	20.8
50대	155,069	877,549	17.7
60대	118,624	668,183	17.8
70대	90,041	596,918	15.1
80대 이상	39,716	312,667	12.7

자료 인구총조사(2015), 통계청

- 젊은 1인 가구 문화는 혼밥으로 시작하여 혼술, 혼창, 혼행, 혼공으로 진화
 -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5'에 따르면 56.8%가 혼자 여가를 즐기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했고, 혼자 즐기는 문화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놀이 풍토가 생김
 -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 외식소비행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6%가 혼자 외식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간단하게 도시락을 먹는 '혼밥'족이 늘어나 편의점 도시락 매출이 2013년 200억 원에서 2016년 5,000억 원으로 급증(CU, GS25, 세븐일레븐 편의점 자체조사)

-영화관에 1인 전용 영화 좌석이 생기는 한편, 1인 맞춤형 여행 상담을 해주는 전용 여행사도 등장했으며, 혼자 전시회·박물관을 본 여성은 42.4%, 혼자 콘서트를 본 여성은 23.2%로 나타남(마이크로밀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 조사)

- 테크놀로지가 익숙한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인터넷 관련 문화 확산
 -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SNS 활동도 활발해졌으며, ‘인스타그램’과 같이 일상의 사진 및 동영상을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인기
 - ‘인스타그램’은 전 세계 월간 활성사용자 수가 평균 3억 명이며, ‘셀피(자가촬영)’, ‘먹스타그램(먹다+인스타그램)과 같은 신조어들이 등장할 정도로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음
 - 온라인 속 소통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소모임’, ‘소셜 다이닝’ 관련 애플리케이션도 생겨남
 - ‘소모임’은 바쁜 현대인들이 특징 취미나 관심사에 따라 동호회를 만들고 함께 공유하는 소셜 애플리케이션
 - ‘소셜 다이닝’은 혼자 밥 먹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날짜를 정해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함께 먹는 새로운 식사 문화
- 여유를 추구하는 키포크 스타일 문화 등장
 - ‘키포크(Kinfolk)’는 2011년 미국 포틀랜드에 사는 예술가들이 만든 잡지로 가까운 소중한 사람들과 소박하게 나누는 키포크 라이프 스타일을 만듦
 - 여유가 진정한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며 일상적인 일에 가치를 두고 취미와 여가, 느긋하고 건강한 식사 등을 즐기는 슬로우 라이프 지향
 - 식품 관련 자연주의 유기농 식단, 도시농부, 텃밭, 홈베이킹이 유행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단순화된 결혼식을 지향하는 셀프웨딩, 스몰웨딩 문화가 생겨났으며, 디자인 개성을 담은 감성캠핑을 떠나는 등 다양한 문화에 영향을 끼침

2. 1인 가구의 다양한 소비형태

- 식문화에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
 - 국내 1인 가구는 주거, 식료품, 외식 및 숙박 소비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가구원수별 가계수지)
 - 주거는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매일 소비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1인 가구 의식주 중 식생활 분야 소비가 가장 큰 것으로 예상
 - 식품업체들은 1인 가구를 위해 다양한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상품을 개발했으며, 대형마트 및 편의점의 자

체브랜드(PB, Private Brand) 상품, 외식업체의 테이크아웃(Take-out) 상품, 차에서 탄 채로 음식 구입이 가능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등 편의성을 강조한 다양한 간편 식문화가 대세

• 편리한 생활 밀착형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바쁜 젊은 1인 가구들은 식사, 쇼핑, 이사, 부동산, 숙박, 금융, 세차, 세탁 등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인터넷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형태로 간편하고 빠르게 이용

-O2O 서비스 인지율과 이용 의향이 가장 높은 서비스는 음식(배달), 숙박, 택시 순(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진흥원, 2015년 인터넷 경제 활동 실태조사)

· 음식 배달 서비스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거리상 가까운 배달 가능 음식점을 연계해주는 서비스부터 배달이 가능하지 않은 맛집의 음식을 직접 구입하여 배달해주는 서비스인 푸드플라이, 배민 라이더스 등 다양한 형태의 앱으로 등장

· 콜택시 앱 서비스인 카카오택시는 이용자의 현위치와 목적지 정보를 기사에게 전송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로 출시 3개월 만에 누적 호출 수 500만 건 이상

-이 밖에도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와 같이 빠르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소셜커머스 앱, 직방, 다방과 같이 편리하게 원룸, 오피스텔 등의 월세, 전세를 검색할 수 있는 앱, 세차왕, 차케어, 인스타워시와 같이 차가 있는 장소로 와서 세차를 해주는 앱, 대리주부, 아내의 휴일, 미소와 같이 청소나 요리 등 밀린 가사일을 해주는 앱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화 중

• 가치 있고 합리적인 소비

-주변 사람들과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키포크 라이프가 등장하면서 한 번뿐인 인생의 순간에 충실한 옐로(YOLO, You Only Live Once) 라이프, 무조건 낮은 가격이 아닌 높은 가치로 가성비를 판단하는 B+프리미엄 등 다양한 문화가 생겨났고, 가치를 느끼는 부분에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문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음

-해외직구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같은 상품을 해외시장에서 더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자라, 유니클로, GAP, H&M과 같은 패스트 패션 SPA브랜드(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Brand)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최신 유행을 반영한 상품을 빠르게 공급받는 등 합리성 추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이케아는 다양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을 내

세우며 예전처럼 오랜 기간 사용하기 위해 가구를 구입하기보단, 쉽게 생활 변화에 맞춰 생활소품을 변경할 수 있는 젊은 트렌드 반영

- 가치 있고 합리적이면서도 편리한 소비
 - 가치 있고 가격은 합리적이면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등장
 - 만나박스는 유기농채소와 식재료를 배달해주는 앱으로 정기배송 신청을 하면 주기적으로 원하는 시간에 배달받을 수 있는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 친환경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문화를 겨냥했으며, 식재료뿐 아니라 조리법을 함께 배송해주어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도 건강한 재료로 쉽게 요리할 수 있게 함
 - 꾸까와 원모먼트는 전문 플로리스트가 만든 꽃다발을 정기적으로 집에 배달해주는 플라워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 주로 바쁘게 살아가는 젊은 고객들이 꽃을 통해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주문
 -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정기 배송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고, 전문가가 만든 꽃다발이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가치 부여

3. 공유경제 활성화

- 협력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를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가 전 세계적 트렌드로 부상
 - 공유경제는 유·무형의 자원을 소유 대신 대여하고 차용하여 쓰는 신경제활동 방식
 - 공유경제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요인이 융합되어 대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자본주의의 위기, 저성장의 지속,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 스마트폰 보급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 소셜 SNS 발달로 개인 간 연계 촉진 등이 공유경제의 주요 등장 배경
 - 공유경제에 대한 글로벌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응답자 중 68%가 자신의 물건을 공유할 의향이 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공유 의향이 81%로 나타나 공유경제에 대한 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Neilson, 2014)
 - 공유경제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개인적, 사회적 연계를 통한 공동체적 가치 회복으로 소유경제와 대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

- 공유경제 산업은 2010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향후 성장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
 - 전 세계 70여 개 도시에서 약 3,000개 이상의 공유서비스 제공
 - 공유경제 세계시장 규모는 2010년 이후 약 100% 이상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Masssolution, 2015)
 - 2010년 8.5억 달러에서 2015년 344억 달러로 40배 이상 급성장
 - 북미와 아시아가 각각 50%, 30.6%로 전체시장의 81%를 차지하며, 아시아 시장규모가 폭발적 성장
 - 우버(Uber)와 에어비앤비(Airbnb)는 단기간에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며 글로벌 공유경제 기업으로 도약
 - 2016년 9월 기준 우버의 기업 가치는 660억 달러(1위), 에어비앤비는 300억 달러(3위)(WSJ, 2016)
 - 2015년 글로벌 스타트업 10대 기업 중 공유경제 관련 기업이 50% 이상
 - 공유경제의 주요 분야는 숙박, 교통, 금융, 공간, 재능 등으로 자원과 이용자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
 - 2016 다보스 포럼은 공유경제가 본격 상용화 및 확산되는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를 2025년으로 전망했으며, PwC는 2025년 공유경제 시장 규모를 3,350억 달러로 예상

- 국가별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공유경제 플랫폼이 급속히 확대되며 해외 주요도시에서 공유경제 관련 법제도 기반 마련
 - 유럽 · 미국 주요 도시도 급증하는 공유경제 플랫폼 이용과 관련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
 - 유럽연합: EU 2020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2010), EC 공유경제 정책 가이드라인(2016) 발표
 - 영국 리즈, 맨체스터: 리즈(교통), 맨체스터(건강 및 사회복지) 공유도시사업 시행(2015)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유럽 최초로 '암스테르담 공유도시' 지정(2015)
 -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유경제와 관련한 정책 이슈를 다루는 워킹그룹 설치(2012)
 - 한편 공유경제 확산으로 주요 도시에서 기존 법제도와 충돌, 불법성 문제,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 등이 발생하면서 공유경제 규제정책도 증가
 - 뉴욕주는 2016년 10월 주택의 단기임대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숙박공유업을 금지
 - 한국은 2016년 2월 공유경제를 신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유민박

업 신설, 카셰어링업체 면허정보 제공범위 확대, 증권형 클라우드펀딩 시행 등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 국내에서도 대도시의 20~30대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공유경제 문화가 빠르게 확산 중
 - 온라인 거래, 온디맨드형 서비스, 비용절감, 협력소비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감성적 연결 등 공유경제의 특성이 젊은 소비세대와 친숙
 - 정장·한복을 대여하는 의류공유 기업 '열린 옷장'은 저렴한 비용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에게 인기를 얻으며 월 2,500여 명이 이용
 - 한국은 우수한 ICT·모바일 인프라를 기반으로 숙박공유, 차량공유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공유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
- 서울시는 2012년 9월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한 이후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법제도 환경 조성에 주력
 - 서울시는 국내 공유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 근거를 국내 최초로 마련하는 등 공유경제 제도 기반 마련과 공유기업 종합지원, 생활속 공유문화 확산, 공유도시 서울브랜드 확산 정책 추진
 - 2012년 공유촉진 조례 제정, 2013년 공유촉진위원회 구성 및 온라인 플랫폼 '공유허브' 구축
 - 공유허브는 연간 방문자수가 150만 명을 넘었고, 2013년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작한 나눔카는 2016년 1,250만 명의 회원 수를 돌파하며 하루 평균 6천 명 이용
 - 2016년 서울시 공유기업 및 단체는 총 70개로 총 75개의 사업을 수행 중
 - 서울시민의 '공유서울' 참여는 2014년 약 33만 명에서 2016년 약 156만 명으로 5배 정도 증가
- 서울시는 공유경제를 육성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유경제 기업의 불법 운영 등 관련 현안을 조정하는 제도적 역할을 모색할 필요
 - 숙박공유기업 에어비앤비와 차량공유기업 우버는 2013년에 한국 진출
 - 우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시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여 2015년 3월 서비스 중단
 - 에어비앤비는 2016년 11월 기준 리스팅 수 10,964개와 호스트 4,602명이 서울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나 무등록 불법 숙박시설의 영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2016년 2월 중앙정부 차원에서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업은 공유민
박업을 신설하여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을 추진 중이나 현재 근거
법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

참고문헌

1. 관계부처 합동, 2016.2.17., “투자활성화대책”,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2. 김난도, 2016, “트렌드 코리아 2017”, 미래의창
3. 김목한, 2013.7,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세계와 도시 1&2호, 서울연구원
4. 김유진, 2015.12.15., “공유경제 트렌드 확산에 따른 산업 생태계 변화”,
글로벌 경영트렌드 제10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5. 김은란 외 3명, 2015,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6. 반정화, 2015, “서울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관광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7. 변미리, “서울의 4種4色 1인 가구, 대세로 자리 잡다”, 서울경제 2016년 3월호, 서울연구원
8. 산업연구원, 2015,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문화서비스 지출행태 및 트렌드 변화”
9. 산업연구원, 2015, “1인 가구의 문화소비지출행태 분석”, 산업연구원
10. 서울특별시, 2016.11, “2016 공유서울페스티벌 콘퍼런스 자료집”
11. 정성춘, 2016.11.18., “2017년 세계경제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16 No.33
12. 한국금융연구원, 2016.10.26., “2016년 경제·금융 동향과 2017년 전망”
13. 한국소비자원, 2015, “1인 가구 소비행태와 소비자문제 연구”
14.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2015 한국인터넷백서”
15. 한국은행, 2016.10, “경제전망보고서”
16. LG경제연구원, 2016.10.05., “2017년 경제전망”, LG Business Insight
17. PwC, 2014, “The sharing economy – sizing the revenue opportunity”

신문기사

1. 연합뉴스, 2016.11.24., “日경제 약재-호재 교차 중대 기로...아베 얼굴 웃음기 가셨다”
2. Wall Street Journal, 2016.9.14., “The World’s 13 Most Valuable Startups”

웹페이지

1.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395200&memberNo=3379134&vType=VERTICAL>
2. <http://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205>
3. <http://lifentalk.tistory.com/1272>
4. <http://blog.daum.net/daumad/927>
5. <http://blog.kiwi.co.kr/220801246691>
6. 내 손안의 서울,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034014>
7. 세계지식포럼, <http://www.wkforum.org>
8. www.insideairbnb.com
9. Masssolution, 2015.3, <http://crowdexpert.com/crowdfunding-industry-statistics/>





생생리포트



서울 혁신지수 (Seoul Innovation Index)

- I. 서론
- II. 서울 혁신지수 지표 구성과 산출 방법
- III. 서울 혁신지수 산출 결과
- IV. 결론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조달호 선임연구위원 dhcho@si.re.kr

최윤진 연구원 erdene@si.re.kr

서울 혁신지수 (Seoul Innovation Index)

I. 서론

혁신이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던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이 도입되어 기존에 존재하였던 관습, 유행, 방법 등을 완전히 바꾸고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혁신'은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나, 일반적으로 기업 활동에서 발명, 발견, 기존 기술의 상용화 등을 통해 신기술,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새로운 경영 전략을 이용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활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이때 신기술 혹은 새로운 경영 전략이란 새로운 생산 기술 개발이나 생산성 향상 수단 도입뿐만 아니라 판로 개척, 생산 공정의 개선, 새로운 사업 모델의 채택, 조직 문화 개선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슈메터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혁신을 강조한 이후 기업 경영, 공공 행정, 경제 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가 간 경제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시장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첨단 과학기술,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지식기반산업의 역할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다수 국가에서 이들 산업은 미래 전략사업으로 채택되어 집중적인 투자,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나아가 기업과 사회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해당 기업과 국가는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여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낙오하기 그 어느 때보다 쉬워진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조직과 기업의 혁신 역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학계, 정책 입안자, 기업 경영자들의 노력과 관심이 중요하다. 또한, 혁신이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국가 혹은 지역의 혁신 잠재력, 혁신 활동 및 그에 수반되는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고 혁신 역량의 강·약점을 분석하여 관련된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가 전 세계 다양한 국가, 지자체, 연구기관에 의해서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예컨대, 유럽에서는 IUS(Innovation Union Scoreboard)를 통해 유럽 주요 국가와 도시들의 혁신 역량과 활동을 파악하고 이를 현실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으며, 뉴욕 역시 NYCEDC Innovation Index를 통해 뉴욕이라는 단일 도시의 전반적인 혁신 역량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지자체단체의 혁신 역량을 분석한 연구는 과거 장재홍 외(2006)에서 이루어진 이후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사실상 최근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혁신 연구의 대부분이 기업과 국가의 혁신 역량을 파악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다. 매력적인 연구 환경과 기업 환경을 제공하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산업정책이 각 지자체의 중요한 비전이자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정책 방향 설정의 기초가 되는 지역 혁신 활동 실태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분석은 아직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혁신지수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첫째는 서울시의 물적·인적 연구개발 여건, 서울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 서울시 연구개발 활동의 직·간접적 성과 및 지식기반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혁신 종합 지표로서의 목적이 있다. 둘째는 서울시의 경제 정책적 비전에 맞추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신 정책들의 투입 및 성과를 분석하는 정책 평가 지표로서의 목적이 있다. 요컨대, 서울 혁신지수는 이를 통해 서울시의 전반적인 혁신 활동과 상황을 꾸준히 관찰하여 서울시 혁신 역량의 강·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현실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서울시의 혁신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서울 혁신지수 지표 구성과 산출 방법

1. 서울 혁신지수의 지표 구성

서울 혁신지수는 뉴욕 혁신지수의 세부 지표들을 벤치마크로 삼되 이를 국내 통계 현실 및 서울시 특수성에 맞도록 응용, 발전시켜 구성하였다. 서울 혁신지수는 기본적으로 뉴욕 혁신지수의 지표 항목 중 국내에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서울 혁신지수의 개발 목적과 서울시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항목들을 지표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적절한 지표 항목으로 생각되나 국

내 통계 여건상 데이터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의미가 있는 대리 지표를 새로 정의하여 지표에 포함하였다. 자료의 속보성 원칙에 따라 지표 항목으로 적합하더라도 2014년까지의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데이터 발표 시점 및 간격이 불규칙한 경우, 적합한 대리 지표를 구축할 수 없는 경우, 데이터가 존재하나 세부적인 분류가 부족하여 통계자료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표 구성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과 중앙·지방 정부의 정책 목표, 서울시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 지원, 투자, 정책 등의 직·간접적 성과들이 지표에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하였다. 각 지표의 의미, 선정 근거, 통계자료원 등은 서울 혁신지수 전체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표 1〉 서울 혁신지수의 지표 체계

대부문	소부문	지표 항목
투입	R&D	1. 서울시 공공부문 R&D 투자 2. 서울시 기업부문 R&D 투자 3. 전국 R&D 투자 대비 서울시 R&D 투자
	재원	4. 서울시 벤처캐피털 투자액 5. 전국 벤처투자액 대비 서울시 벤처투자액 6. 기술보증기금의 서울소재기업 보증 공급액 7. 서울시 외국인 직접투자액(FDI)
	인적 자본	8. 서울시 연구원의 수 9. 전국 총 연구원의 수 대비 서울시 연구원의 수 10. 서울의 이공계 대학원생 수 11. 서울시 지식산업분야 활동 사업체 수
산출	혁신 성과	1. 서울시 지식재산권 총 출원 건수 2. 서울시 공공부문 관리 특허 출원 건수 3. 서울시 공공부문 관리 SCI 논문 수 4. 서울시 공공부문 관리 기술료 수입 5. 서울시 공공부문 관리 사업화 건수
	경제적 효과	6. 서울시 GRDP 대비 지식기반 제조업 GRDP 7. 서울시 GRDP 대비 지식기반 서비스업 GRDP 8. 서울시 전체기업 총 수출 대비 벤처기업 수출액 비중 9. 서울시 지식산업분야 총 종사자 수 10. 서울시 혁신 기업(벤처+Innobiz+Mainbiz)의 수 11. 서울시 매출액 고성장 기업 비중

서울 혁신지수는 투입과 산출의 두 부문으로 크게 나뉜다. 여기서 투입은 혁신 관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와 공공이 투입하는 인적·물적 자원을 뜻하며, 산출은 혁신활동을 통해 발생한 지적·경제적 성과를 말한다. 투입은 구체적으로 R&D, 재원, 인적 자본 등 3종류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출은 혁신 성과와 경제적 효과의 2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서울 혁신지수는 총 22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투입과 산출의 세부지표 수는 각각 11개로 동일하다.

2. 서울 혁신지수의 지식기반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대한 분류·정의

서울 혁신지수에서 고려하는 혁신 산업의 범위를 서울형 7대 유망산업^① 중 에서 혁신과 관련이 있는 산업 일부로 한정하면 혁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산업(예: 반도체, 정밀기기, 정밀화학,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들이 대 거 성과 평가에 포함되지 않아 혁신 성과가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다. 한편, 지식기반산업 전체와 취사 선별되지 않은 서울형 유망산업 전체를 함께 고 려하면 혁신과 관련이 적은 산업(예: 운송업, 건설업, 음식점업, 주점업 등) 들이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되어 혁신 성과가 과대평가되고 나아가 혁신지수 의 논리 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서울 혁신지수의 지식기반산업 범위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2004, 산업자원부)에서 한국표준산업분 류로 지정한 지식기반산업을 기본으로 하되, 서울형 7대 유망산업으로 선 정된 산업 중 혁신과 관련된 세부 업종들을 선별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산업 분류는 다음과 같다.

서울 혁신지수의 지식기반 제조업 범위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2004, 산업자원부)에서 규정한 지식기반 제조업 9대 산업군^②을 근간으로 하되, 서울형 7대 유망산업의 제조업 부문이 기존에 정의된 지식기반 제조 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하여 보완하였다. 구체적인 산업 분류는 서울 혁신지수 전체 보고서에 정리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산업 정의 방법은 다음 과 같다.

- ① R&D, 바이오·의료, MICE·관광, 문화·레저, ICT·도심제조, 교육서비스, 도시재생·건축
- ② 전자정보기기,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생물, 정밀기기, 신소재, 환경, 항공·우주
- ③ 치과용 기기 제조업,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의료용 가구 제조업,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지정한 지식기반 제조업의 산업군별 세부 산업을 산업연구원이 제9차 산업분류개정에 따라 재조정된 코드를 기준으로 정의
- 전자정보기기,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생물, 정밀기기, 신소재, 환경, 항공·우주 등 9개 산업군
- 서울형 유망산업인 바이오·의료 산업의 세부 업종 중에서 기존에 정의된 지식기반 제조업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의료기기, 부속품 제조 업종을 정밀기기 산업에 추가^③

지식기반 서비스업 범위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2004, 산업자원부)에서 규정한 지식기반 서비스업 5대 산업군⁴을 기반으로 하되, 서울형 7대 유망산업의 서비스업 부문이 기존에 정의된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하여 보완하였다. 구체적인 산업 분류는 서울 혁신지수 전체 보고서에 정리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산업 정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⁴ 정보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문화, 관광, 물류 등의 5대 산업군 중 정보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문화, 관광의 4개 산업을 기반으로 하였다.

⁵ 정기 항공 운송업, 부정기 항공 운송업, 호텔업,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국내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⁶ 종합 병원, 일반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일반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앰블런스 서비스업, 유사의료업, 그 외 기타보건업,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⁷ 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일반 고습 학원, 기타 교육기관 (운전학원 제외), 교육지원 서비스업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지정한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산업군별 세부 산업을 산업연구원이 제9차 산업분류개정에 따라 재조정된 코드를 기준으로 정의
- 정보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문화, 관광·MICE, 보건·의료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 6개 산업군
- 서울형 유망산업 중 MICE, 보건·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산업이 기존에 정의된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포함되도록 해당 산업을 새롭게 정의하여 기존 산업군에 추가
- MICE는 정부 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국무총리실이 2009년 발표한 '신성장동력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되어 이후 '신성장동력 업종 및 품목분류(안)'(2009,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분류되고 산업연구원의 내부 검토를 거쳐 확정된 MICE·융합관광 산업 중 혁신지수의 성격에 맞는 세부 업종들을 기존의 분류와 중복되지 않도록 관광 산업에 선별⁵하여 포함
-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은 병원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유망 사업 모델로 선정한 노인요양시설, 홈케어 관련 산업⁶들을 포함하고, 교육서비스 산업은 초등 교육기관, 중등 교육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 서비스업 중 혁신지수의 성격에 맞는 산업⁷들을 포함

3. 서울 혁신지수 산출 방법

서울 혁신지수는 단일 도시의 혁신 역량 시계열 추이 분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Distance to a Reference Method(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각 연도의 값을 비례적으로 조정하는 표준화 기법)를 지수 산출 방법으로 사용한다. 이 기법은 뉴욕 혁신지수, KOSPI 지수, 산업생산지수 등 유사한 목적을 갖는 지수 산출에 널리 쓰이는 기법으로 계산이 쉽고 결과가 안정적이며, 결과 해석이 직관적이고 쉽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 혁신지수의 가중치 배분과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중치 총합을 1로 두고 2개의 대부문(투입, 산출)에 각각 50%씩의 가중치를 부여한 후, 해당 50%를 각 중부문에 동일하게 나누어 배분한다. 이는 뉴욕 혁신지수에서도 사용된 방식으로 예를 들어 투입은 R&D, 재원, 인적 자본에 각각 16.7%의 가중치가 부여되며, 산출 부문은 혁신 성과, 경제적 효과에 각각

25%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세부 지표의 산술 평균값이 중부문 값이 되며 전술한 가중치 값을 적용하여 구한 가중 평균치가 각각 대부분과 최종 지표 값이 된다.

*** Distance to a Reference Method**

$$\text{표준화 산식} : Y_i^t = \frac{X_{i,r}^t}{X_{i,r}^{t_0}} \times 100$$

- 여기에서, x는 원지표, Y는 표준화된 값, t는 자료의 해당 연도, i는 지표 항목, r은 복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각 지역 구분 단위, t₀은 기준 연도 (서울 혁신지수에서는 2010년), 이하 산식에서도 동일
- 비례식 원리에 따라 기준연도의 값을 100으로 설정한 후 해당 연도의 값을 기준연도에 비례하여 조정하는 방법이며,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표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할 때 널리 쓰임
- 시계열 자료가 새로 추가되더라도 기존의 지표 값에 변동이 없으며 산출 방법이 간단하고 안정적인 장점이며, 기본적으로 시계열 자료 분석에 적합하나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 가능

〈표 2〉 서울 혁신지수 가중치 배분

최종 지표	대부문	중부문	세부 지표 가중치
서울 혁신지수 - 22개 (100%)	투입 - 11개 (50%)	R&D - 3개 (16.7%)	1/18
		재원 - 4개 (16.7%)	1/24
		인적 자본 - 4개 (16.7%)	1/24
	산출 - 11개 (50%)	혁신 성과 - 5개 (25%)	1/20
		경제적 효과 - 6개 (25%)	1/24

Ⅲ. 서울 혁신지수 산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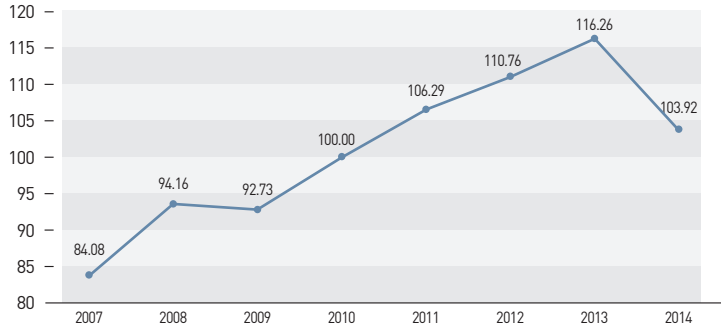
1. 서울 혁신지수 지표 부문별 추이

1) 투입

(1) R&D 투입 규모

서울시 전체의 R&D 투입 수준을 나타내는 R&D 투입 지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연평균 5.8%씩 완만히 상승했으나 2014년에는 전년 대

비 10.6% 하락한 103.92를 기록하면서 R&D 투입 지표는 2011년 수준보다 낮아졌다. R&D 투입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지표들 중에서 서울시 기업부문의 R&D 투자와 전국 대비 서울시 R&D 투자 비율이 대폭 감소했는데, 특히 전체 서울시 R&D 투자의 2/3 가량을 차지하는 기업부문의 R&D 투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R&D 투입 지표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R&D 투입 지표 추이

서울시 전체의 R&D 투자 규모는 2014년 기준 9조 6,356억 원으로 전년(10조 7,027억 원) 대비 10.0% 감소했다. 2014년 기준 서울시 공공부문의 R&D 투자(3조 3,488억 원)는 전체 서울시 R&D의 34.8%, 기업부문의 R&D 투자(6조 2,868억 원)는 65.2%를 차지하고 있다. 첫 번째 세부지표인 공공부문의 R&D 투자는 전년 대비 2.1% 감소했고 이 중에서 공공연구기관의 R&D 투자(1조 1,587억 원)가 전년 대비 18.8% 감소한 반면, 대학(교)의 R&D 투자(2조 1,901억 원)는 9.8% 증가했다. 2014년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본격화⁸로 서울시 공공연구기관의 R&D 투자 규모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보이며, 대학(교)의 R&D 투자 증가분이 공공연구기관의 R&D 투자 감소분의 일부를 상쇄하면서 전체 공공부문의 R&D 투자 감소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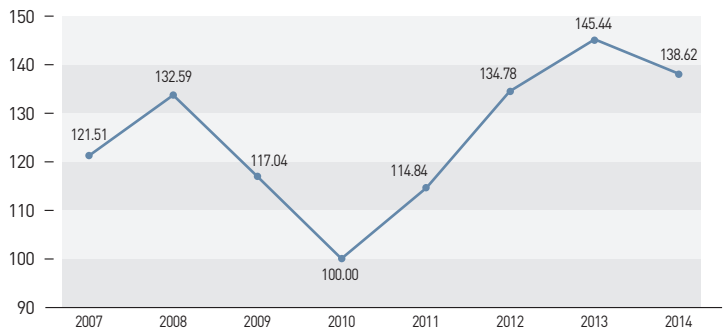
두 번째 세부지표인 기업부문의 R&D 투자도 크게 감소해 전년보다 13.7%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중에서 정부투자기관의 R&D 투자(419억 원)와 민간기업의 R&D 투자(6조 2,449억 원)는 각각 전년 대비 19.5%, 13.6% 감소했다. 정부투자기관의 R&D 투자는 2011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012년부터 줄고 있는 반면, 기업부문 R&D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기업의 R&D 투자는 2013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씩 계속 증가하다가 2014년에 큰 폭으로 떨어져 전체 기업부문의 R&D 투자는 2012년 수준보다 더 낮아지게 되었다.

⁸ 총 154개 이전 공공기관 중 2008년~2013년 사이 22.7% (35개/154개), 2014년에 39.0% (60개/154개)가 지방이전이 완료됨

세 번째 지표인 전국 R&D 투자 대비 서울시 R&D 투자 비율(15.1%)은 전년(18.0%)보다 2.9%p 감소했다. 2014년에 대부분 시·도에서 R&D 투자가 늘어난 동안 서울시에서는 R&D 투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 R&D 투자의 2/3 가량을 차지하는 민간기업의 R&D 투자가 2014년 한 해 동안 9,854억 원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경기지역 민간기업의 R&D 투자는 3조 7,328억 원 증가해 종합적으로 전국의 R&D 투자 중에서 서울시 R&D 투자 비중은 축소된 반면, 경기지역 R&D 투자 비중은 더욱 확대되었다.

(2) 재원 규모

혁신활동에 필요한 자금 동원 수준을 나타내는 재원 규모 지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매년 평균 13.3%씩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2014년에는 전년 대비 4.7% 하락한 138.62를 기록했다. 지표의 세부항목 중에서 서울시 외국인 직접투자액(FDI)과 전국 대비 서울시 벤처캐피털 투자비율이 전년보다 감소했으며 그 중에서도 서울시 외국인 직접투자액의 감소가 지표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 재원 지표 추이

첫 번째 세부지표인 서울시 벤처캐피털 투자액⁹은 2014년 기준 1조 8,609억 원으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국에서 벤처캐피털 투자가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40.2%)이었고, 그다음은 경기(27.5%), 기타/해외(5.6%), 대전(5.3%) 순이었다. 2014년에 경기, 기타/해외, 대전 지역에서 벤처캐피털 투자액이 크게 늘면서 두 번째 세부지표인 전국 대비 서울시 벤처캐피털 투자비율(40.2%)이 전년(41.7%) 대비 1.5%p 감소해 서울시 투자처로서 갖는 매력도가 전년보다 소폭 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⁹ 경영기반이 약해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융자받기 어려운 벤처사업에 주식 취득 등의 형식으로 투자되는 모험적 자본

세 번째 세부지표인 기술보증기금의 서울소재기업 보증공급액^⑩은 2011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서울소재기업 보증공급액은 3조 6,286억 원으로 전년(3조 6,004억 원) 대비 0.8% 증가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네 번째 세부지표인 서울시 외국인 직접 투자액(FDI)^⑪은 2014년 기준 54.9억 달러로 전년(61.4억 달러) 대비 10.7% 감소해 2012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FDI 유입이 전년보다 65.4% 증가한 반면, 미주 지역은 소폭 감소(-8.3%)했고, 유럽 지역은 유럽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전년 대비 53.7% 감소해 2012년 수준(15억 달러)으로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금융·보험업(-50.4%), 부동산·임대업(-64.5%)의 FDI 규모가 감소한 반면, 제조업을 비롯한 그 외 업종은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신규(-16.2%) 및 증액(-7.2%)투자는 감소한 반면, 장기차관(16.1%)은 증가했으며, 투자목적별로는 M&A형(인수합병, 기존 주식취득) 투자가 대폭(-43.8%) 감소한 반면, 제조업과 관련이 있는 그린필드형(사업장 설립/증설, 공장 설립/증설) 투자는 소폭(19.5%) 증가했다.^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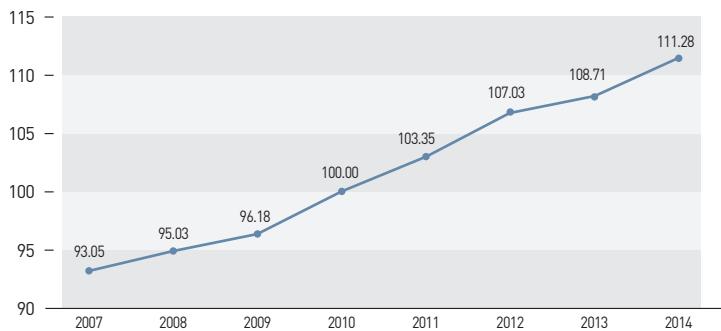
(3) 인적 자본

투입부문의 인적 자본 지표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지표는 지난 5년간 평균 3.1%의 상승률을 보이다가 2014년에는 전년 대비 2.4% 상승한 111.28을 기록했다.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인 서울시 연구원 수, 지식산업분야 사업체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이공계 대학원생 수는 2010년에 크게 늘어난 이후 최근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 대비 서울의 연구원 수 비율은 2008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세부항목을 종합하면 2014년 인적 자본 지표 상승 원인은 서울시 지식산업분야 사업체 수와 서울시 연구원 수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⑩ 기술력을 인정받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들이 자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확보한 경영 자금

⑪ 설비투자 등 외국자본의 장기자본 투자

⑫ 출처: 2014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http://opengov.seoul.go.kr/public/3907596>)



〈그림 3〉 인적 자본 지표 추이

첫 번째 세부지표인 서울시 연구원 수는 2014년 기준 107,474명으로 전년(105,045명) 대비 2.3% 증가했다. 2014년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수가 크게 감소해 전년보다 24.1% 줄어든 반면, 민간기업과 대학의 연구원 수는 각각 2.7%, 7.4% 증가했다. 서울시 연구원들은 주로 민간기업(59.2%)과 대학(35.2%)에 속해있고 공공연구기관(5.3%)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전체적인 서울시 연구원 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번째 세부지표인 전국 대비 서울시 연구원 수 비율은 2014년 기준 24.6%로 전년(25.6%)보다 1.0%p 줄었다. 2014년에 서울시 연구원 수가 증가했음에도 전국의 연구원 수(437,447명)가 전년(410,333명)보다 6.6% 늘어나 상대적으로 연구원 수가 더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며, 2014년에 새로 늘어난 연구원(27,114명) 중 절반 이상은 경기지역의 민간기업(14,286명)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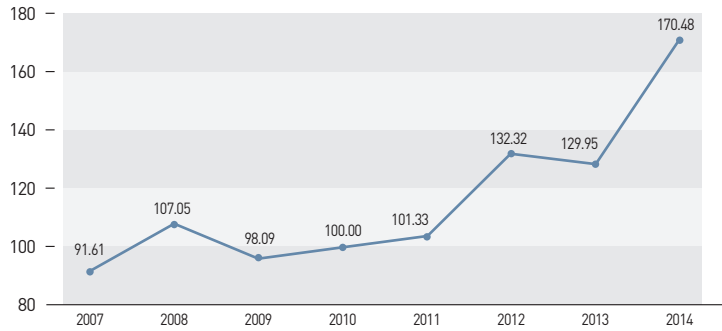
세 번째 세부지표인 서울의 이공계 대학원생 수는 2014년 기준 46,726명으로 전년(46,251명)보다 1.0% 증가했다. 계열별로는 공학계열(43.7%)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의약계열(31.1%), 자연계열(25.2%) 순이며, 각 계열의 대학원생 수는 전년 대비 각각 0.3%, 0.8%, 2.6% 증가해 2014년에는 자연계열 대학원생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세부지표인 서울시 지식산업분야 사업체 수는 2014년 기준 130,282개로 전년(119,783개) 대비 8.8% 증가했다. 지난 5년간 각 연도별 사업체 수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2014년 한 해 동안에 지식산업분야의 사업체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했으며, 지식기반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자정보기기, 정밀기기 산업이, 지식기반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기업지원서비스, 정보서비스 산업의 사업체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2) 산출

(1) 혁신 성과

산출부문의 혁신 성과 지표는 2012년에 크게 상승했다가 2013년에 소폭 하락한 뒤 2014년에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해 170.48을 기록했다.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항목 중 하나인 서울시 지식재산권 총 출원 건수는 2010년부터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다가 2014년에 소폭 감소한 반면, 나머지 항목들은 2014년에 대폭 증가해 산출부문의 혁신 성과 지표가 크게 상승하게 되었다.



〈그림 4〉 혁신 성과 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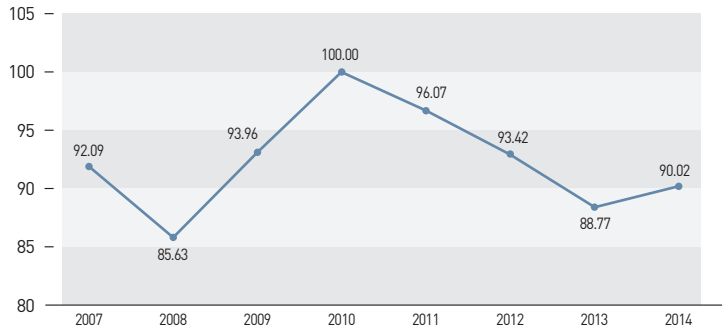
첫 번째 세부지표인 서울시 지식재산권의 총 출원 건수는 2014년 기준 133,681건으로 전년(138,642건) 대비 3.6% 감소했다. 지적재산권 중 특허 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반면, 나머지 항목인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건수는 각각 전년 대비 15.9%, 6.4%, 6.5% 감소했다.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세부지표인 공공부문 관리 특허, SCI 논문, 기술료 수입, 사업화 건수 실적은 국가 R&D 사업에 의한 실적과 서울산업진흥원(SBA)의 R&D 사업에 의한 실적을 종합하여 산출한다. 사업주체별로 분석해보면 2014년 국가 R&D 사업에 의한 서울시 공공부문 관리 R&D 실적은 크게 증가한 반면, SBA의 R&D 사업에 의한 공공부문 관리 R&D 실적은 공공부문 관리 기술료 수입액을 제외한 전 항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R&D 사업에 의한 서울시 공공부문 관리 R&D 실적의 세부항목 중 특허 출원 건수와 사업화 성과 건수는 각각 2010년, 2011년부터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지만 SCI 논문 건수와 기술료 수입은 2013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2014년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각 세부항목을 2013년도 실적과 비교해보면 공공부문 관리 특허 출원 건수는 8,663건으로 전년(6,334건) 대비 36.8% 증가했고, SCI 논문 건수는 13,385건으로 전년(9,811건) 대비 36.4% 증가했다. 기술료 수입액은 587.1억 원으로 전년(416.5억 원) 대비 41.0% 증가했으며, 사업화 성과 건수는 2,900건으로 전년(2,034건) 대비 4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BA의 R&D 지원 사업에 의한 서울시 공공부문 관리 R&D 실적은 기술료 수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각 세부항목별로 지난해 실적과 비교하면 기술료 수입액은 30.4억 원으로 전년(16.8억 원) 대비 81.4% 증가한 반면, 특허 출원 건수는 76건으로 전년(118건) 대비 35.6% 감소했다. SCI 논문 건수는 61건으로 전년(135건) 대

비 54.8% 감소했으며, 사업화 성과 건수는 33건으로 전년(36건) 대비 8.1% 감소했다.

(2) 경제적 효과



〈그림 5〉 경제적 효과 지표 추이

산출부문의 경제적 효과 지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평균 3.9%씩 하락하다가 2014년에 전년 대비 1.4% 상승해 90.02를 기록했다.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항목 중 지식산업분야의 종사자 수가 매년 완만히 증가했으나, 혁신기업 수, 벤처기업의 수출액 비중, 매출액 고성장 기업 비중은 201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식기반 제조업의 GRDP 비중은 2013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014년에는 다시 증가했고,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GRDP 비중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각 세부항목을 종합해보면 2014년에 서울시 지식산업분야 종사자 수 증가와 지식기반 제조업 GRDP 비중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효과 지표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첫 번째 세부지표인 서울시 전체 GRDP 대비 지식기반 제조업(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의 비중은 2014년 기준 1.42%로 전년(1.36%) 대비 0.06%p 증가했다. 2014년 서울시 전체 GRDP가 전년 대비 2.4% 증가한 가운데, 지식기반 제조업의 GRDP는 7.2% 증가해 서울시 전체 GRDP에서 지식기반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소폭 늘어났다.

두 번째 세부지표인 서울시 전체 GRDP 대비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비중은 2014년 기준 33.0%로 전년(33.2%) 대비 0.2%p 감소했다. 2014년 서울시 전체 GRDP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반면,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GRDP는 전년 대비 1.6% 증가해 서울시 전체 GRDP에서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되었다. 2014년 한 해 동안 전체 지식기반 서비스업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GRDP가 가장 크게 증가(7.2%)했으나 교육서비스업의 GRDP는 감소(-1.4%)했다.

세 번째 세부지표인 벤처기업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이후 매년 감소했으나 2014년에 벤처기업의 수출액이 크게 늘면서 벤처기업 수출액 비중이 감소에서 증가로 역전됐다. 2014년 서울시 전체기업 대비 벤처기업 수출액 비중은 3.6%로 전년(3.3%) 대비 0.3%p 증가했다. 2014년 서울시 전체기업의 수출액이 623.3억 달러로 전년(603.2억 달러) 대비 3.3% 증가한 가운데 벤처기업의 수출액은 22.3억 달러로 전년(20.1억 달러) 대비 11.1%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체 수출액에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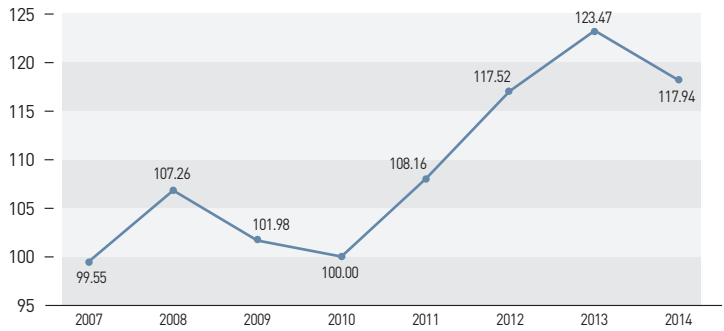
네 번째 세부지표인 서울시 지식산업분야 종사자 수는 2014년 기준 1,306,730명으로 전년(1,243,412명) 대비 5.1% 증가했다. 지난 4년간의 종사자 수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2014년에 지식산업분야 종사자 수가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으며, 지식기반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자정보기기, 정밀기기 산업이, 지식기반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기업지원서비스, 정보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의 종사자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다섯 번째 세부지표인 서울시 전체 혁신기업의 수는 2014년 기준 12,438개로 전년(12,571개) 대비 1.1%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벤처기업이 전년 대비 4.6% 증가한 반면, 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기업은 각각 4.6%, 9.2% 감소했다. 벤처기업은 2008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기업은 2011년부터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 번째 세부지표인 서울시 매출액 고성장 기업 비중은 2014년 기준 7.9%로 전년(8.7%) 대비 0.8%p 감소했다. 2014년 매출액 고성장 기업 수는 4,006개로 전년(4,295개) 대비 6.7% 감소했으며, 매출액 고성장 기업은 2010년 이후로 매년 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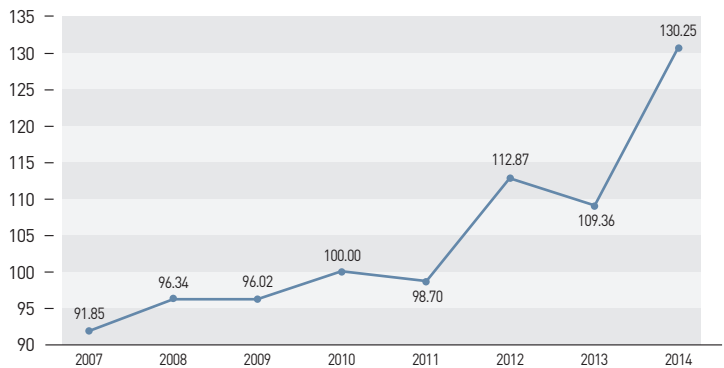
2. 서울 혁신지수 투입·산출 및 종합지수 분석

R&D 투입 규모, 채용 규모, 인적 자본으로 구성된 혁신지수의 투입부문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7.3%씩 상승했으나 2014년에는 하락세로 전환해 전년 대비 4.5% 하락한 117.94를 기록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인적 자본 지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R&D 투입 규모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14년에 대폭 감소했으며, 채용 규모는 2009년과 2010년에 연속으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2010년부터 다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4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투입부문의 전반적인 추세는 세부지표 중에서 등락폭이 가장 큰 채용 규모 지표의 특징이 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혁신 투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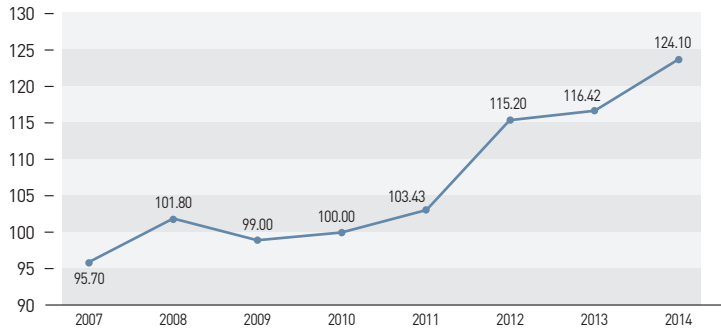
혁신 성과, 경제적 효과 지표로 구성된 혁신지수의 산출부문은 격년 단위로 증가하는 계단식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에 지수가 소폭 하락한 뒤 2014년에 크게 상승해 130.25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효과 지표는 2010년까지 상승하다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혁신 성과 지표는 2008년, 2012년, 2014년에는 급증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주춤하는 양상을 보인다. 두 지표가 결합된 산출부문은 2011년까지 다소의 등락을 반복하며 대체로 완만하게 상승하다 2012년과 2014년에 급상승하였다. 대체로 공공부문 관리 특허 출원 건수, SCI 논문 건수, 기술료 수입, 사업화 성과 등 기존 R&D 투입으로부터의 양호한 성과가 산출부문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혁신 산출 추이

투입과 산출부문을 종합한 2014년의 서울 혁신지수는 전년보다 6.6% 상승한 124.10을 기록했다. 앞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산출부문의 혁신 성과 지표가 2014년의 서울시 혁신지수를 상승세로 이끈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며, 그중에서도 국가 R&D 사업에 의한 성과가 전체 혁신지수 상승에 미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8〉 종합 혁신지수 추이

〈표 3〉 각 부문 및 투입, 산출, 종합 혁신지수 연도별 추이 (표준화)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R&D	84.08	94.16	92.73	100.00	106.29	110.76	116.26	103.92
재원	121.51	132.59	117.04	100.00	114.84	134.78	145.44	138.62
인적 자본	93.05	95.03	96.18	100.00	103.35	107.03	108.71	111.28
혁신 성과	91.61	107.05	98.09	100.00	101.33	132.32	129.95	170.48
경제적 효과	92.09	85.63	93.96	100.00	96.07	93.42	88.77	90.02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투입	99.55	107.26	101.98	100.00	108.16	117.52	123.47	117.94
산출	91.85	96.34	96.02	100.00	98.70	112.87	109.36	130.25
종합	95.70	101.80	99.00	100.00	103.43	115.20	116.42	124.10

IV. 결론

2014년 서울 혁신지수는 2013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부적인 분석 결과 2014년에는 기존의 투입으로부터 얻은 혁신 산출의 성과로 혁신지수가 상승한 것으로서 혁신 투입활동은 2013년보다 상대적으로 부진해 지수를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혁신의 투입 수준을 설명하는 R&D 투자 및 재원 규모가 2013년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고, 인적 자본은 기존의 증가속도를 유지하는 수준에 그쳤다. 상대

적인 혁신 투입 상태를 가리키는 전국 대비 서울시 R&D 투자 비율, 전국 대비 서울시 벤처캐피털 투자 비율, 전국 대비 서울시 연구원 수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감소세를 보였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본격화가 공공부문에서 혁신 투입이 줄어든 한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민간부문에서 혁신 투입이 줄어든 원인이 경기, 대전 등 다른 지역의 경쟁력 확보로 서울시가 투자처로서의 매력도가 줄어든 까닭인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혁신 투입에 대한 결과인 혁신 성과와 경제적 효과 지표는 2013년 수준보다 높아졌는데, 특히 혁신 성과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항목 중 R&D 활동에 따른 공공부문 관리 특허 출원 건수, SCI 논문 건수, 기술료 수입, 사업화 성과 건수가 대폭 증가해 이와 같은 혁신 산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혁신 투입이 줄어드는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혁신 산출의 결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전반적인 지수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다. 서울특별시가 대한민국의 지식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다지고 혁신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투자, 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양질의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서울시는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의 우수한 물적, 인적 혁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식의 활발한 교류와 평등한 지식 접근 기회, 실패 후 재기가 가능한 경영 환경 및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기업 간 협력과 상생의 문화, 창업과 기업가 정신, 혁신 성과의 고른 분배 등과 같은 무형적 혁신 인프라까지 성숙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힘들다. 서울시의 혁신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물적 투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선진적인 혁신 문화의 구축과 혁신 저변의 확대를 위해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R&D·교육·사회 안전망·중소기업 지원·경제민주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활용 가능한 통계 자료의 제약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지만 향후에는 서울 혁신지수 역시 통계자료 구축과 지표 보안을 통해 상기한 무형적 혁신 인프라 및 혁신의 질적 성과를 지수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시의 전반적인 산업 역동성과 혁신 역량을 키우기 위해 경제 비전 2030,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 산업거점 조성, 도심 산업 육성, 혁신형 창업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책 비전을 세우고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GDP 성장과 고용 창출을 주도하는 반면, 우리나라

는 대기업이 경제 성장과 고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이 점점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최근 국내 상황을 고려해볼 때, 경쟁력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의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서울시의 정책적 지향은 매우 바람직하다. 단, 연구개발 활동이 유형적 성과를 만들어내기까지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정책 초기에 즉각적인 성취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혁신 투자의 단기적인 성과에 지나치게 연연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목표하에서 도시의 혁신 잠재력과 혁신 문화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부록: 서울 혁신지수와 뉴욕 혁신지수 대응표

부문	뉴욕 혁신지수		서울 혁신지수	
투입	R&D	1. 뉴욕시 기관 단체들의 R&D 투자 2. 미국 전체 R&D 투자 대비 뉴욕시 R&D 투자	1. 서울시 공공부문 R&D 투자 2. 서울시 기업부문 R&D 투자 3. 전국 R&D 투자 대비 서울시 R&D 투자	R&D
	재원	3. 뉴욕시 벤처캐피탈 조성액 4. 뉴욕시 벤처캐피탈 지원건수 5. 미국 총 벤처캐피탈 조성액 중 뉴욕시 비중 6. 미국 총 벤처캐피탈 지원건수 중 뉴욕시 비중 7. SBIR/STTR : 뉴욕시 기업 지원액 8. SBIR/STTR : 뉴욕시 기업 지원건수 9. SBIR/STTR : 미국 총 기업 지원액 중 뉴욕시 비중 10. SBIR/STTR : 미국 총 기업 지원건수 중 뉴욕시 비중	4. 서울시 벤처캐피탈 투자액 5. 전국 벤처투자액 대비 서울시 벤처투자액 6. 기술보증기금의 서울소재기업 보증 공급액 7. 서울시 외국인 직접투자(FDI)	재원
	인적 자원	11. 뉴욕시의 이공계 종사자 수 12. 뉴욕시 민간부문 총 고용 대비 이공계 고용 비율 13. 뉴욕시 과학, 공학 분야 대학원생 수 14. 미국의 총 이공계 대학원생 수 대비 뉴욕의 이공계 대학원생 수	8. 서울시 연구원의 수 9. 전국 총 연구원의 수 대비 서울시 연구원의 수 10. 서울의 이공계 대학원생 수 11. 서울의 지식산업분야 활동 사업체 수	인적 자원
산출	지적 재산권	1. 뉴욕시 과학자들의 총 특허 출원 건수 2. 특허의 기술적 다양성 지수 3. 특허 출원 기업 다양성 지수 4. 특허의 독창성 지표 5. 특허의 일반성 지표 6. 대학특허권 : 뉴욕시로 유입되는 특허권 수입 7. 대학특허권 : 미국 전체 특허 수입 대비 뉴욕시 비중 8. 대학특허권 : 미국 전체 특허 건수 대비 뉴욕시 비중	1. 서울시 지식재산권 총 출원 건수 2. 서울시 공공부문 관리 특허 출원 건수 3. 서울시 공공부문 관리 SCI 논문 수 4. 서울시 공공부문 관리 기술료 수입 5. 서울시 공공부문 관리 사업화 건수	혁신 성과
	하이테크 지역총생산	9. High-Tech 제조업 분야의 노동자당 GRDP 10. 뉴욕시 전체 GRDP 중 High-Tech 분야 GRDP 비중		
	기업가정신 & 고용역동성	11. 뉴욕시 하이테크 분야로의 종사자 유·출입 증감 12. 뉴욕시 사업체의 하이테크 분야로의 유·출입 (Churning) 13. 뉴욕시 하이테크 산업에서 신규 창출된 일자리 비중 14. 뉴욕에 본사를 둔 회사의 평균 시가총액 비중 15. SBIR/STTR : 2년 내에 2단계 지원을 받을 가능성 16. SBIR/STTR : 2단계 지원에 의해 지원된 총액 17. 벤처캐피탈 : 2년 내 다음 자본 조달 단계로 진입가능성 18. 벤처캐피탈 : 다음 자본조달 단계에서 조성된 벤처자본 총량 비중	6. 서울시 GRDP 대비 지식기반 제조업 GRDP 7. 서울시 GRDP 대비 지식기반 서비스업 GRDP 8. 서울시 전체 기업 총 수출 대비 벤처기업 수출 비중 9. 서울시 지식산업 총 종사자 수 10. 서울시 혁신 기업의 수 11. 서울시 매출액 고성장 기업 비중	경제적 효과

참고문헌

1. 김묵한, 2013, “서울의 지식기반산업 실태조사 (1) : 지식기반 제조업”, 서울연구원
2. 김묵한, 2013, “서울의 지식기반산업 실태조사 (2) : 지식기반 서비스업”, 서울연구원
3. 김민식 외, 2010, “서울시 지식기반 제조업의 R&BD 역량 강화방안”, 서울연구원
4. 김용희, 2012, “COST를 활용한 OECD 국가 유형 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 미래창조과학부, 2007~2013,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6. 신민수 외, 2013,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 측정 방법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7. 안병민, 2013, “우리나라의 지역별 연구개발활동 현황”, KISTEP
8. 안혜린, 2010, “국가과학기술경쟁력 종합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KISTEP
9. 오영수 외, 2005, “한국의 지역혁신 역량에 대한 실증 연구”
10. 장재홍, 2006a, “지역혁신정책과 지역균형발전 간의 관계 분석 및 정책 대응”
11. 장재홍 외, 2006b, “혁신활동의 지역 간 비교분석”, 산업연구원
12. 조달호 · 정의영, 2015, “서울 혁신지수(Seoul Innovation Index)”, 서울연구원
13. 주혜정, 2011, “주요 경쟁력 보고서의 과학기술 지표 종합분석을 통한 과학기술역량지표 개선 및 분야별 대응전략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14. 지식경제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2009, “신성장동력 업종 및 품목분류(안)”
15.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2010b, “산업기술혁신통계 체제개발 및 지표설계”
16.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2011, “객관적 산업기술 혁신지표 개발을 위한 예비적 검토”
17. EC, 2004~2014, “Innovation Union Scoreboard”
18. EC, 2012, “Regional Innovation Scoreboard”
19. INSEAD-WIPO-Johnson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Cornell University, 2014, “The Global Innovation Index 2014”
20. Jan Fagerberg-Bart Verspagen, 2009, “Innovation studies—The emerging structure of a new scientific field”
21. NYCEDC, 2011, “NYCEDC Innovation Index”
22. OECD, 2008, “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 Methodology and User Guide”
23. OECD, 2005, “Oslo Manual: Guidelines for Collecting and Interpreting Innovation Data, 3rd Edition”
24. Schumpeter, J. A., 1934, [original German edition published in 1912],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인포그래픽스



서울 외국인 근로자의 69.8%가
한국계 중국인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조달호 선임연구위원 dhcho@s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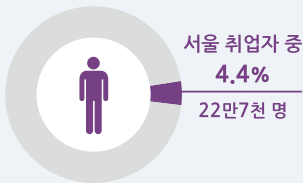
장윤선 前연구위원 changys@si.re.kr

인포그래픽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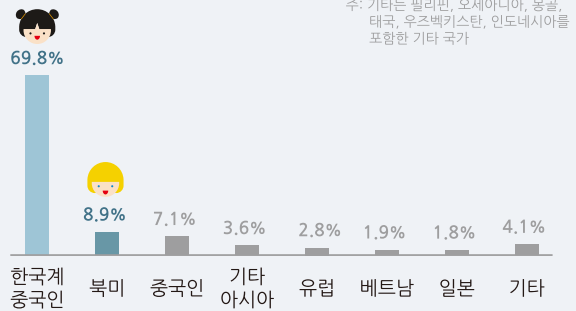
서울 외국인 근로자의 69.8%가 한국계 중국인

서울 외국인 근로자의 69.8%가 한국계 중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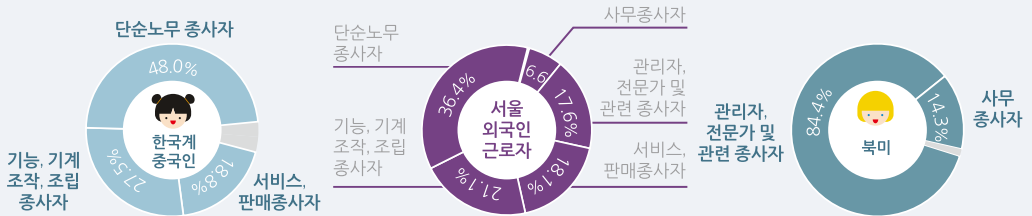
서울 외국인 근로자



서울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



서울 직업별 외국인 근로자



주: 외국인고용조사는 조사원 면접방식으로 조사했으며, 가중치 부여하여 분석
자료: 외국인고용조사, 통계청 (2015)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소

조달호 선임연구위원 dhcho@si.re.kr / 장윤선 前연구위원 changys@si.re.kr

서울 외국인 근로자는 22만 7천 명으로 서울 취업자의 4.4% 차지
한국계 중국인 근로자는 단순노무 종사자(48.0%)가 가장 많은 반면,
북미 근로자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84.4%)가 압도적으로 많아

서울 외국인 근로자는 22만 7천 명으로 서울 취업자의 4.4% 차지

- 그 중 한국계 중국인(69.8%)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북미(8.9%), 한국계를 제외한 중국인(7.1%), 기타 아시아(3.6%), 유럽(2.8%) 순
- 서울의 외국인 근로자는 2012년 20.4만 명에서 2015년 22.7만 명으로 지난 3년간 11.3% 증가

한국계 중국인 근로자는 단순노무 종사자(48.0%)가 가장 많은 반면, 북미 근로자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84.4%)가 압도적으로 많아

- 서울 외국인 근로자는 단순노무 종사자(36.4%)가 가장 많고, 그다음은 기능, 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21.1%), 서비스 판매 종사자(18.1%),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7.6%), 사무 종사자(6.6%) 순
- 한국계 중국인 근로자는 단순노무 종사자(48.0%)가 가장 많고, 그다음은 기능, 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27.5%), 서비스 판매 종사자(18.8%) 순
- 이에 반해 북미 근로자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84.4%)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은 사무종사자(14.3%)

〈표 1〉 서울 전체 취업자와 외국인 근로자

[단위: 명, %]

외국인 근로자 수	전체 취업자 수	비중
226,845	5,167,000	4.4

주 2015년 5월 기준이며, 외국인고용조사는 가중치 부여하여 분석

자료 외국인고용조사, 통계청(2015)

〈표 2〉 서울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

[단위: 명, %]

	외국인 근로자 수	비중
한국계 중국인	158,396	69.8
북미	20,077	8.9
중국인(한국계 제외)	16,181	7.1
기타 아시아	8,171	3.6
유럽	6,295	2.8
베트남	4,282	1.9
일본	4,174	1.8
기타	9,269	4.1
전체	226,845	100.0

주 외국인고용조사는 조사원 면접방식으로 조사했으며, 가중치 부여하여 분석

자료 외국인고용조사, 통계청(2015)

〈표 3〉 서울 직업별 외국인 근로자

[단위: 명, %]

직업	전체		한국계 중국인		북미	
	외국인 근로자 수	비중	외국인 근로자 수	비중	외국인 근로자 수	비중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9,919	17.6	4,433	2.8	16,949	84.4
사무종사자	14,940	6.6	4,541	2.9	2,869	14.3
서비스, 판매종사자	40,956	18.1	29,793	18.8	259	1.3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709	0.3	-	0.0	-	0.0
기능, 기계조작, 조립종사자	47,836	21.1	43,570	27.5	-	0.0
단순노무종사자	82,485	36.4	76,059	48.0	-	0.0
전체	226,845	100.0	158,396	100.0	20,077	100.0

주 외국인고용조사는 조사원 면접방식으로 조사했으며, 가중치 부여하여 분석

자료 외국인고용조사, 통계청(2015)





경제동향



요약

고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고용률

생산 제조업지수/출하·재고지수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물가 소비자물가

부동산 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주택월세가격

금융 가계대출/개인파산/신설·부도/신용보증

수출입 수출입액/품목별 수출입/국가별 수출입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최윤진 연구원 erdene@si.re.kr

경제동향 | 요약



고용

- 서울의 10월 취업자는 515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9천 명(0.4%) 증가
- 산업별 취업자는 건설업(14.1%)에서 전년 동월 대비 가장 크게 증가
- 임금근로자가 전년 동월 대비 0.8% 증가한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1.1% 감소
- 고용률은 60.6%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 실업률은 4.1%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



생산

- 서울의 10월 제조업생산지수는 118.3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
- 10월 제조업 출하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6% 감소, 재고지수는 2.4% 감소하여 경기 둔화/하강 국면을 시사



소비

- 서울의 10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 6,609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6%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국(7조 6,076억 원)의 35.0%를 차지
- 백화점 판매액(11.7%)과 대형마트 판매액(19.6%)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



물가

- 서울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0(2010년=10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
- 계절적 요인으로 신선식품물가지수(14.4%)가 크게 상승했으며, 서비스물가지수(2.0%), 생활물가지수(1.0%), 상품물가지수(0.6%)도 모두 상승



부동산

- 서울의 10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50% 상승한 102.5 기록
- 서울의 10월 주택전세가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26% 상승한 102.2 기록
- 서울의 10월 월세통합가격지수는 100.2로 준전세의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월세와 준월세의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전월 대비 0.02% 하락



금융

- 서울의 10월 전체 대출금 잔액은 665조 4,725억 원으로 전월 대비 0.8% 증가
- 서울의 10월 가계대출 잔액은 260조 5,152억 원으로 전월 대비 1.0% 증가
- 서울의 10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68조 461억 원으로 전월 대비 1조 8,657억 원(1.1%) 증가,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5%
- 서울의 10월 신설법인 수는 2,659개로 전월 대비 15.6% 증가, 부도법인 수는 11개로 전월보다 3개 감소
- 서울의 10월 보증지원금액은 994.4억 원, 보증지원건수는 4,594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16.6%, 23.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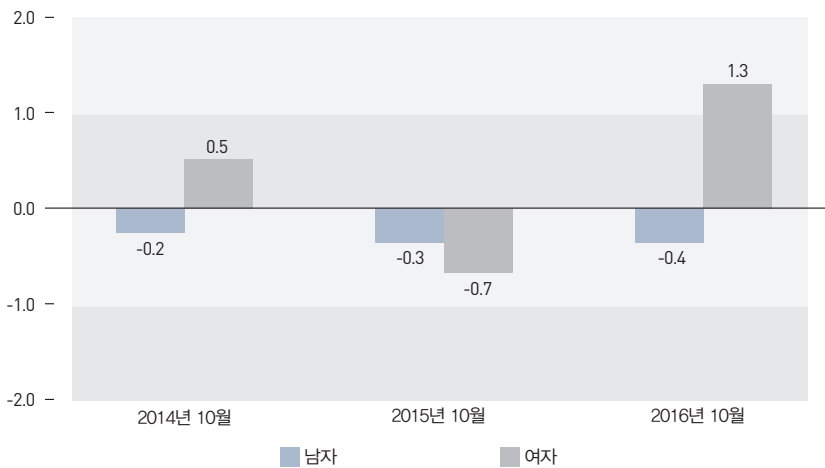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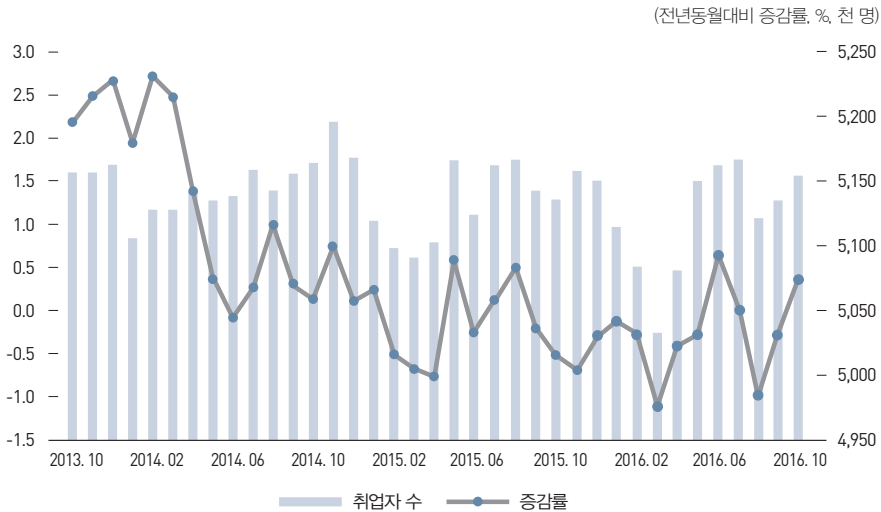
수출입

- 서울의 10월 수출액은 420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30.1% 감소, 품목별로는 자동차부품,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 서울의 10월 수입액은 117.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9.0% 증가, 품목별로는 원유,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취업자

서울의 10월 취업자 수는 515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4% 증가

- 서울의 10월 취업자는 515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 명(0.4%)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4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 명(-0.4%) 감소, 여자는 230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만 명(1.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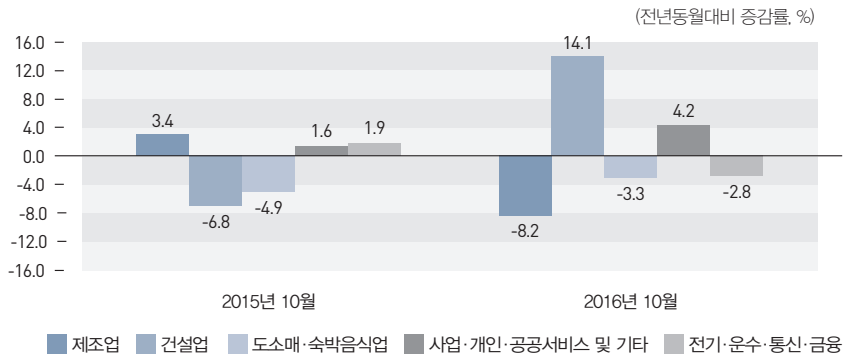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추이 및 증감률

산업별 취업자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제조업에서 감소한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증가

-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도소매·숙박·음식점업 4만 6천 명(-3.3%), 제조업 4만 1천 명(-8.2%), 전기·운수·통신·금융업 2만 3천 명(-2.8%)이 감소한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8만 8천 명(4.2%), 건설업 4만 4천 명(14.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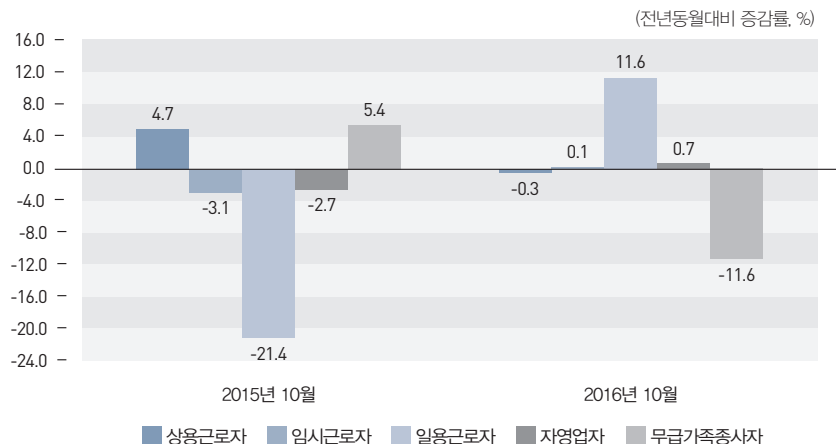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산업별 취업자 증감률

서울은 10월에 임금근로자는 증가한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감소

-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3만 2천 명(0.8%) 증가, 비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 3천 명(-1.1%)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7천 명(-0.3%) 감소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3만 7천 명(11.6%), 임시근로자는 1천 명(0.1%) 증가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7천 명(0.7%) 증가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 9천 명(-11.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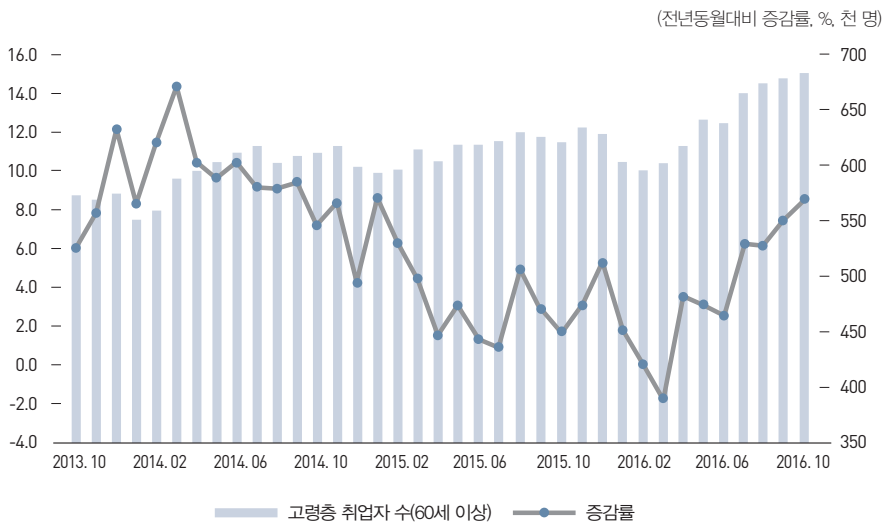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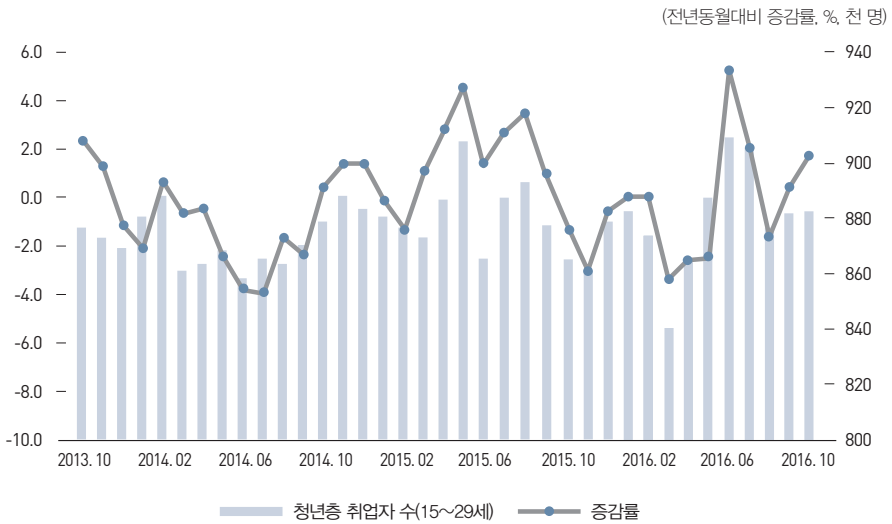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률

서울의 10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 수와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모두 증가

- 서울의 10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 수는 88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
- 서울의 10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67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8% 증가
- 올해 6월부터 고령층 취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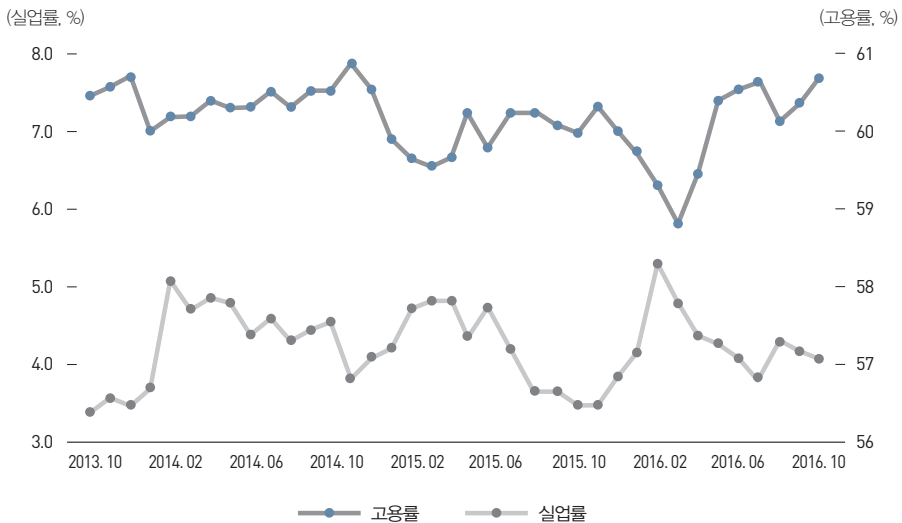
고용률 및 실업률

서울의 10월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으나, 전국 대비 낮은 수준

- 서울의 10월 고용률은 60.6%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나 전국(61.0%)보다는 낮은 수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1%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 여자는 51.9%로 전년 동월 대비 0.9%p 상승

서울의 10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으며, 전국 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10월 실업자는 22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명(15.6%) 증가
- 실업률은 4.1%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1%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 여자는 4.1%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
- 2016년 10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3.4%)에 비하여 0.7%p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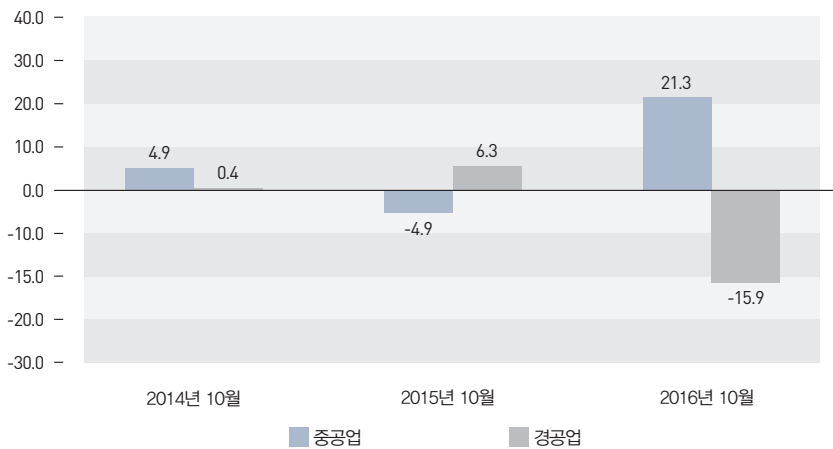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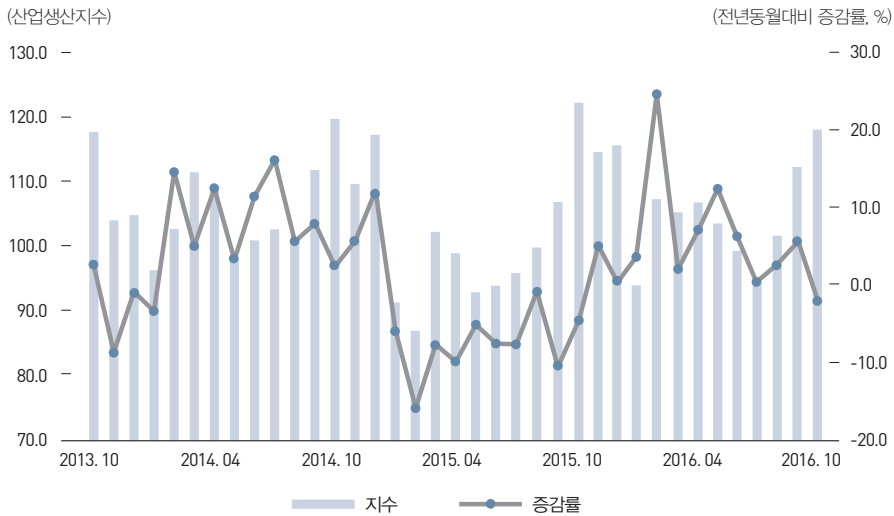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생산

서울의 10월 제조업생산지수는 2.9% 감소

- 서울의 10월 제조업생산지수는 118.3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
- 중공업 부문은 전년 동월 대비 21.3%로 크게 증가한 반면, 경공업은 15.9% 감소
- 업종별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가죽 및 신발(55.2%), 기계장비(28.2%) 등은 증가한 반면, 고무 및 플라스틱(-51.6%), 의복 및 모피(-23.9%), 섬유제품(-9.7%) 등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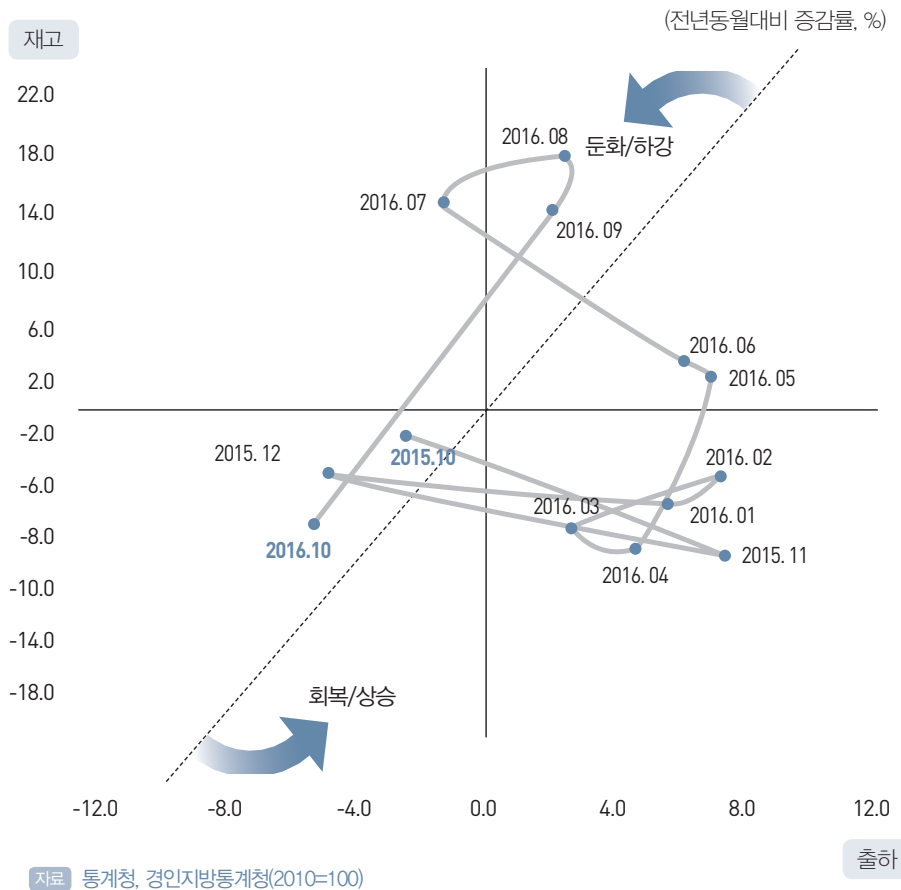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산업생산 추이 및 증감률

출하·재고 순환

서울의 10월 제조업 출하지수는 4.6% 감소, 재고지수는 2.4% 감소하여 경기 둔화/하강 국면을 시사

- 서울의 10월 출하지수는 121.4(2010=100.0)로 전년 동월 대비 4.6% 감소
- 서울의 10월 재고지수는 147.9(2010=100.0)로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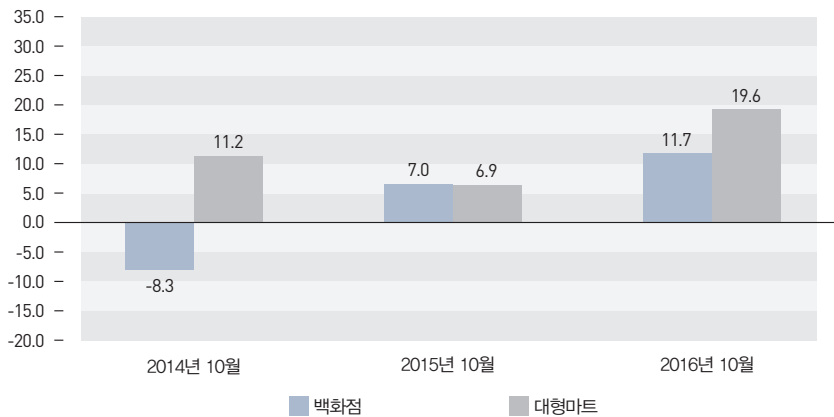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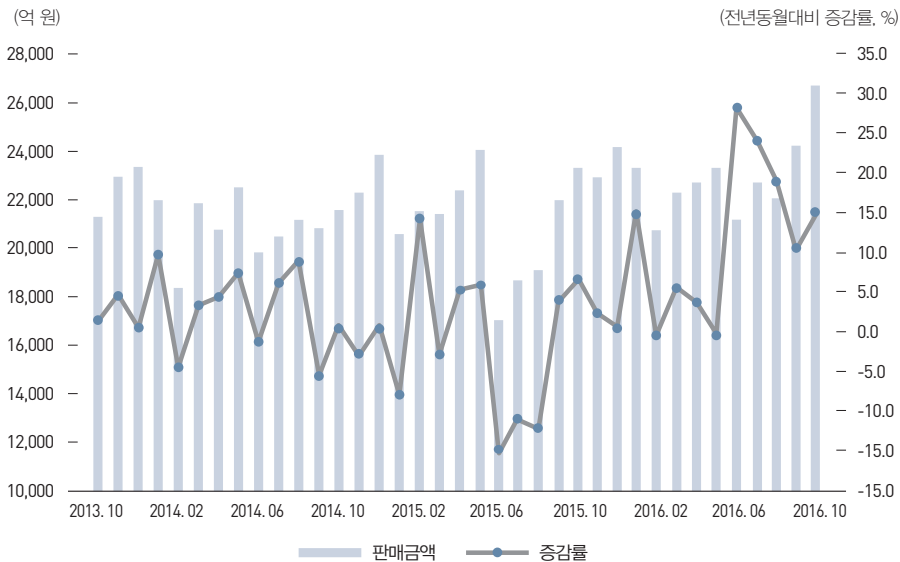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소비

서울의 10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5.6% 증가

- 서울의 10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 6,609억 원으로 전국(7조 6,076억 원)의 3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5.6% 증가
- 10월 백화점 판매액은 1조 3,103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7% 증가,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 3,506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6%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및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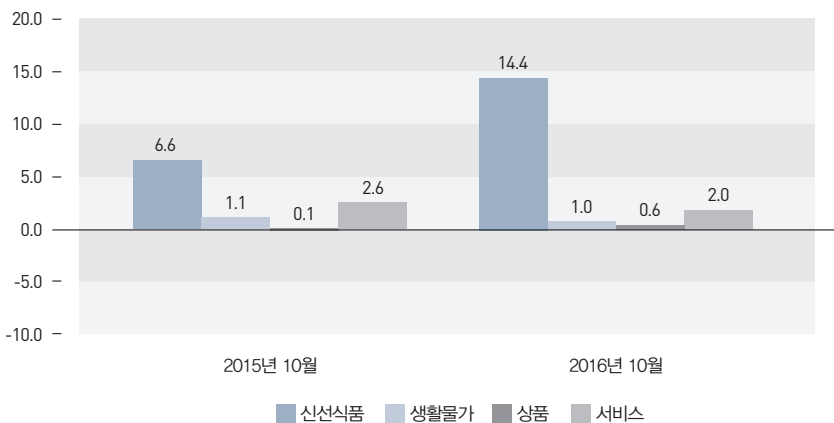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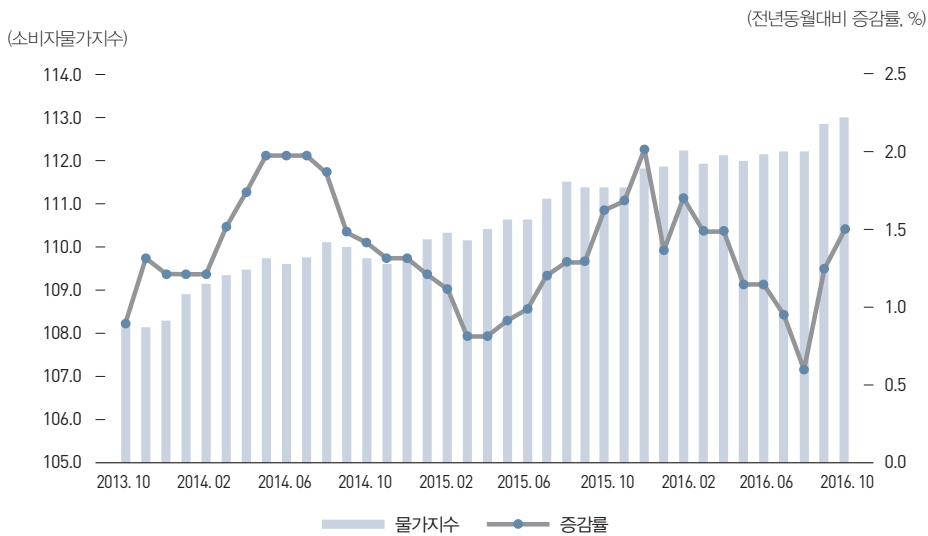
경제동향 | 물가

물가

서울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5% 상승

10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3.0(2010년=10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

- 전년 동월 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 신선식품물가지수(14.4%), 서비스물가지수(2.0%), 생활물가지수(1.0%), 상품물가지수(0.6%) 모두 상승
- 여름철 폭염과 10월 태풍(차바) 등 계절적 요인으로 2개월 연속 신선식품물가지수가 크게 상승함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및 동향

주택매매가격

서울의 10월 주택매매가격지수^㉔는 전월 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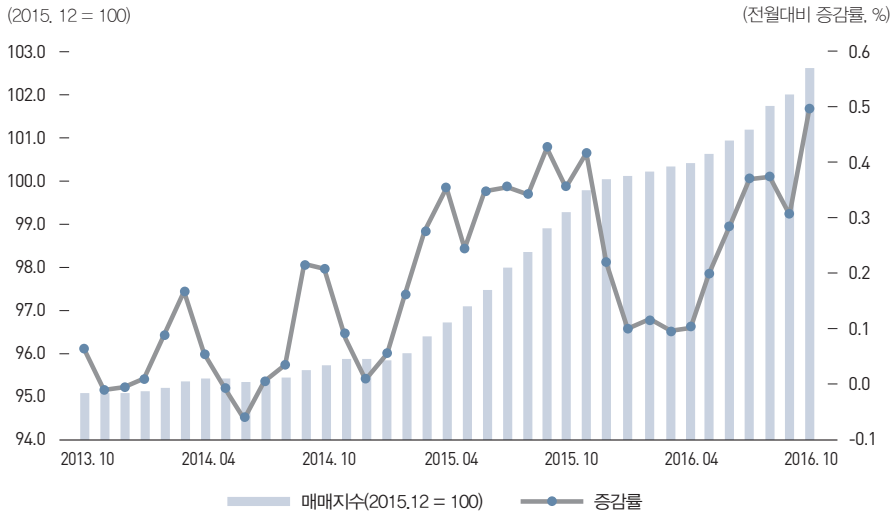
- 서울의 10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2.5로 전월 대비 0.50% 상승. 한강이남지역(0.59%)은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강남지역의 여러 개발 호재로 상승폭 확대. 한강이북지역(0.40%)은 가을 이사철 내집 마련 실수요와 재건축 예정단지의 투자수요 증가로 상승세 지속
 - 주요 상승지역: 서초구(0.86%), 강남구(0.84%), 송파구(0.70%)

주 2016년 1월 자료부터 기준연도(2013.3→2015.12) 변경

서울의 10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 거래건수는 전월 대비 감소

-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가격^㉕(1,898만 원)은 전월 대비 1.51% 상승, 거래건수(12,954건)는 19.3% 감소
- 양천구(2.66%)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노원구(1,270건), 송파구(950건), 강동구(864건) 순임

주 부동산114



자료 KB국민은행

〈그림〉 서울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와 증감률 추이

수도권과 5개 광역시, 기타 지방은 상승세 지속

- 전국의 10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1.0으로 전월 대비 0.24% 상승. 신규분양시장의 호황과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 및 투자수요가 증가하며 상승세 지속. 수도권(0.38%)과 5개 광역시(0.13%), 기타 지방(0.03%)은 상승세 지속

주택전세가격

서울의 10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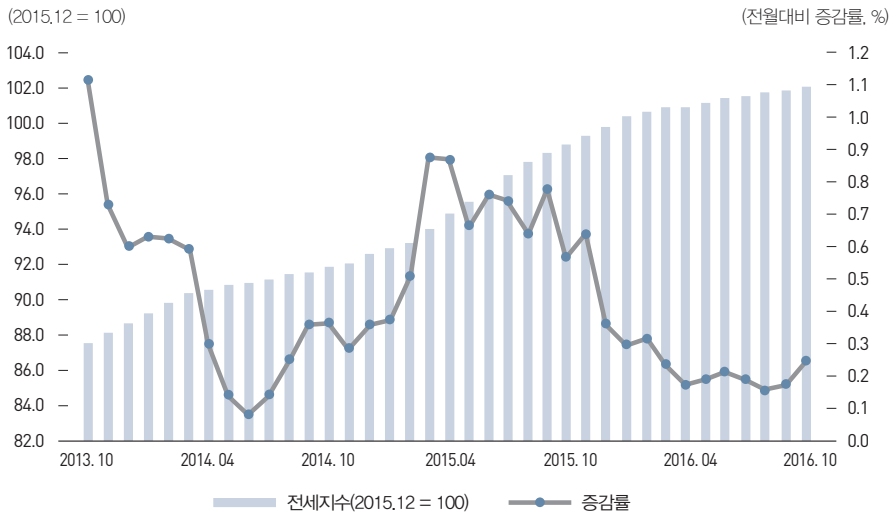
- 서울의 10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102.2로 전월 대비 0.26% 상승. 한강이남지역(0.16%)은 신규 공급 물량이 해소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되고, 한강이북지역(0.35%)은 가을 이사철과 저금리로 인한 임차인의 전세선호 현상이 맞물리며 상승폭 확대
 - 주요 상승지역: 마포구(0.53%), 성북구(0.52%), 서대문구(0.48%)

주 2016년 1월 자료부터 기준연도(2013.3~2015.12) 변경

서울의 10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 거래건수는 전월 대비 증가

- 아파트 평당 평균 전세가격[■](1,302만 원)은 전월 대비 0.6% 상승, 거래건수(11,047건)는 18.8% 증가
- 용산구(1.93%) 지역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거래건수는 송파구(1,104건), 노원구(1,047건), 강남구(921건) 순임

주 부동산114



자료 KB국민은행

〈그림〉 서울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와 증감률 추이

수도권과 5개 광역시, 기타 지방은 상승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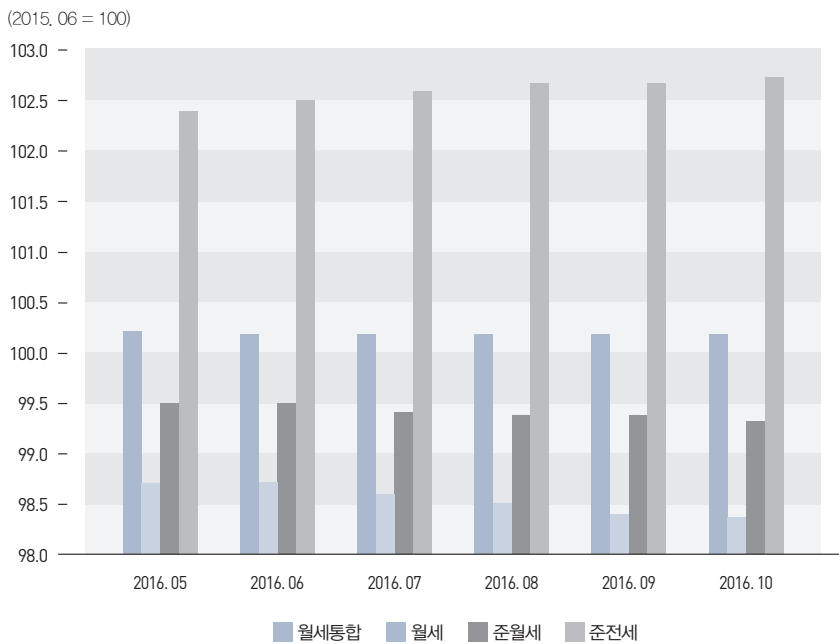
- 전국의 10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18% 상승한 101.3을 기록.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을철 이주 수요 증가에 따른 전세물량 부족으로 상승세 지속. 수도권(0.26%)과 5개 광역시(0.11%), 기타 지방(0.05%)은 상승폭 확대

주택월세가격

서울의 10월 월세통합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

- 서울의 10월 월세통합가격지수는 100.2로 전월 대비 0.02% 하락. 준전세(0.06%)의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월세(-0.07%)와 준월세(-0.04%)는 하락폭이 확대되어 월세통합은 전월 대비 하락폭 확대
- 한강이남지역(0.00%)은 월세, 준월세는 하락했으나 준전세는 상승폭이 확대되어 전월 하락에서 보합 전환. 한강이북지역(-0.03%)은 직장인 수요로 강서구, 구로구는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강동구, 강남구 등 재건축 예정단지의 저가 임대 영향으로 전월 보합에서 하락 전환

주 보증금이 1년 치 월세 미만이면 '월세', 보증금이 전세금의 60% 초과하면 '준전세', 월세와 준전세 중간영역의 월세는 '준월세'로 구분



자료 한국감정원

〈그림〉 서울시 월세통합가격지수 추이

전국의 10월 월세통합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

- 전국의 10월 월세통합가격지수는 100.1로 전월 대비 0.02% 하락. 준전세(0.07%)는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월세(-0.08%)와 준월세(-0.04%)는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월세통합은 전월과 같은 하락세 유지

경제동향 |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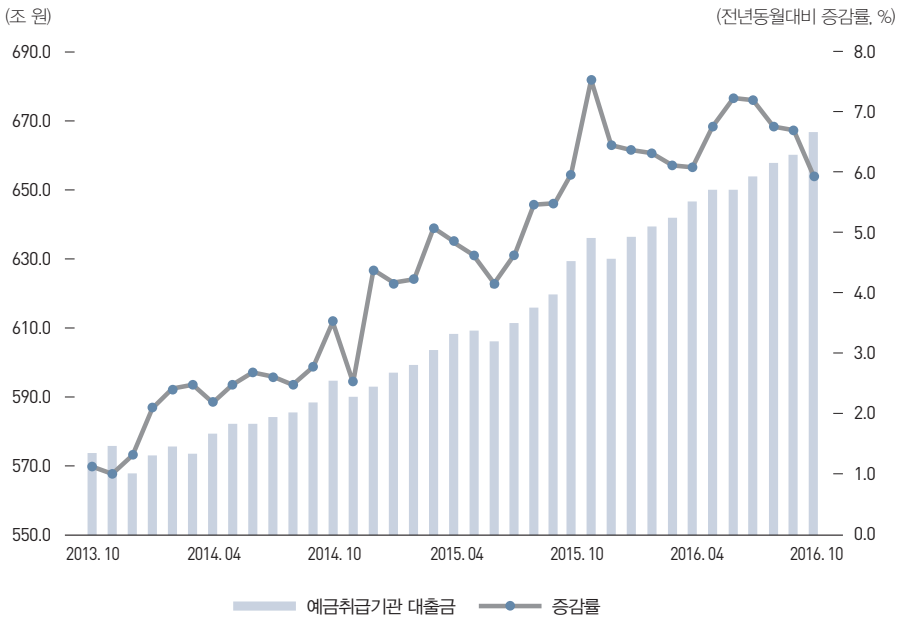
가계대출

10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 대비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665조 4,725억 원)은 전월 대비 0.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
- 그 중 예금은행(548조 3,822억 원)과 비예금은행(117조 903억 원)은 전월 대비 각각 0.6%, 1.6% 증가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7%, 11.6% 증가

10월 기준 전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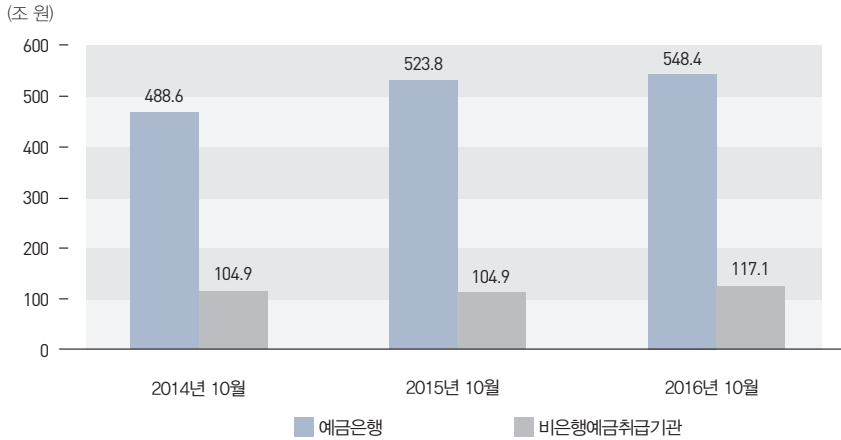
- 전체 대출금 잔액(1,885조 9,666억 원)은 전월 대비 1.0%, 전년 동월 대비 8.6% 증가
- 그 중 예금은행(1,425조 1,022억 원)과 비예금은행(460조 8,644억 원)은 전월 대비 각각 0.8%, 1.5% 증가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9%, 14.3% 증가



주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과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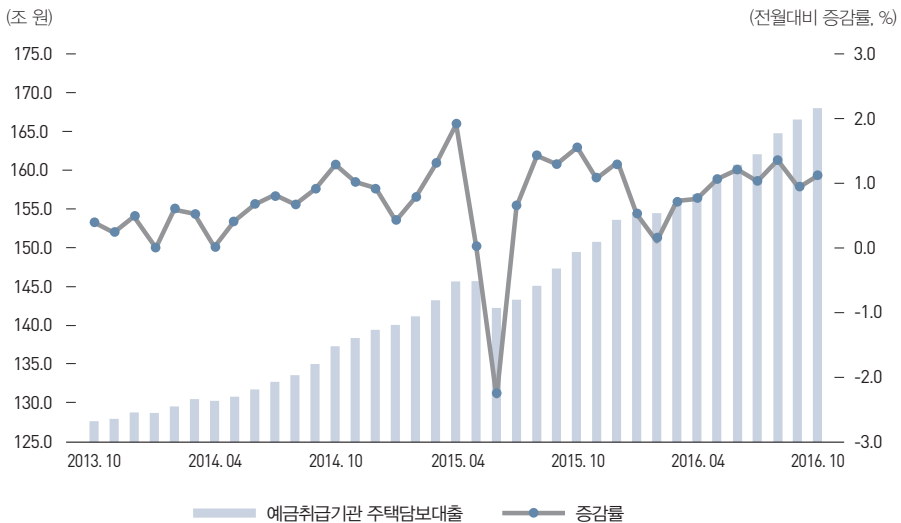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10월 중 서울의 가계대출 잔액과 주택담보대출 잔액 모두 전월 대비 증가

-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260조 5,152억 원)은 전월(257조 8,480억 원) 대비 1.0% 증가
- 그 중 주택담보대출(168조 461억 원)은 전월(166조 1,804억 원) 대비 1조 8,657억 원(1.1%)이 증가하였고,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4.5%



주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 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주택담보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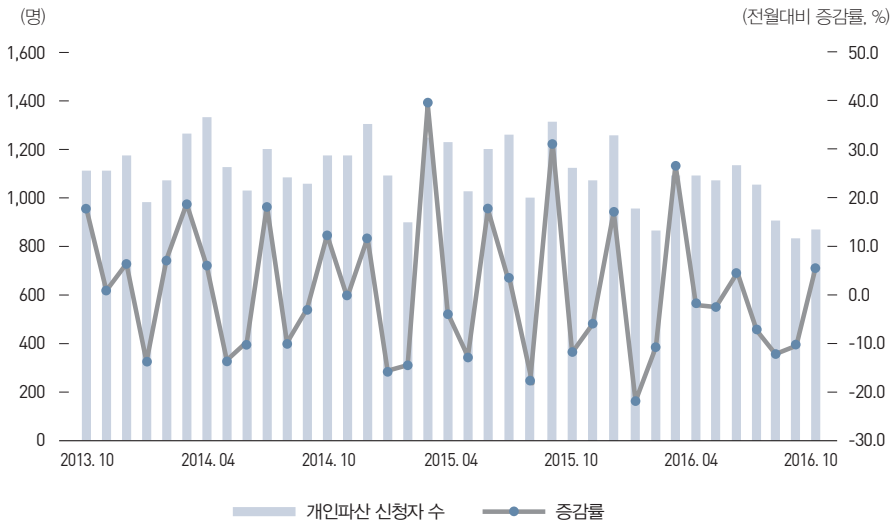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중 추이

10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 대비 증가

- 서울의 10월 개인파산 신청자(881명)는 전월(836명) 대비 5.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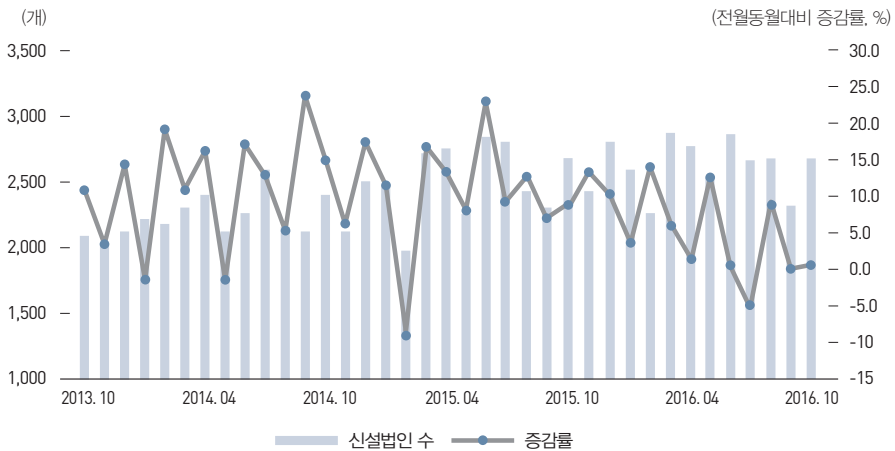
자료 대법원

〈그림〉 서울의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신설법인

서울의 10월 신설법인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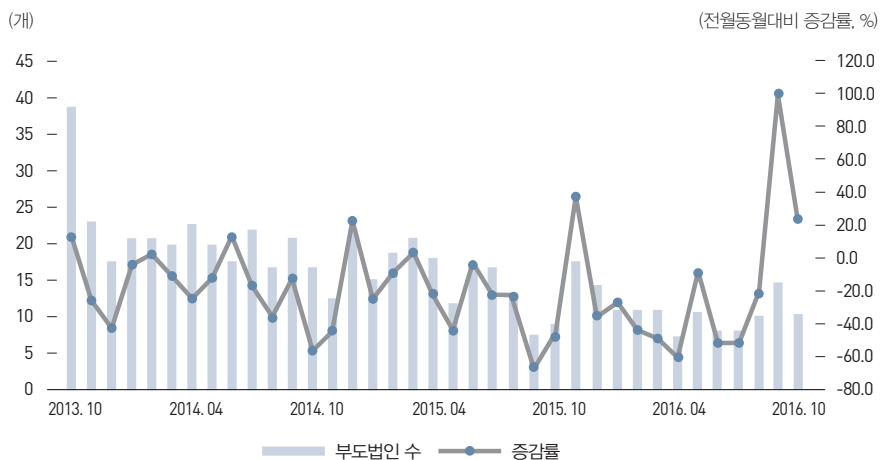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659개로 전월 대비 15.6%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1% 증가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서울의 10월 부도법인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

- 서울의 부도법인 수는 11개로 전월(14개) 대비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2.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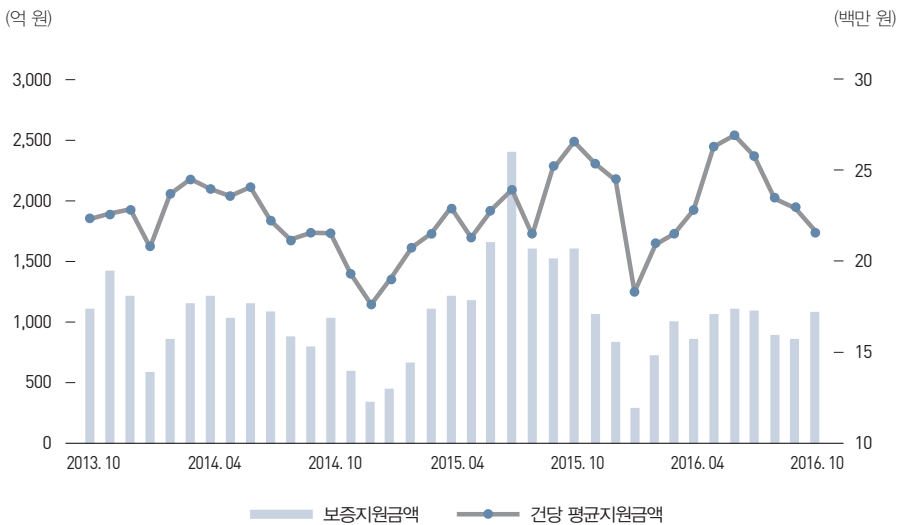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신용보증

서울의 10월 보증지원금액, 보증건수는 전월 대비 증가,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감소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10월 중 994.4억 원 / 4,594건
- 보증지원금액과 보증건수는 각각 전월 대비 16.6%, 23.9% 증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6.7%, 22.8% 감소
- 건당 평균지원금액(2,164만 원)은 전월 대비 5.9%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8.0%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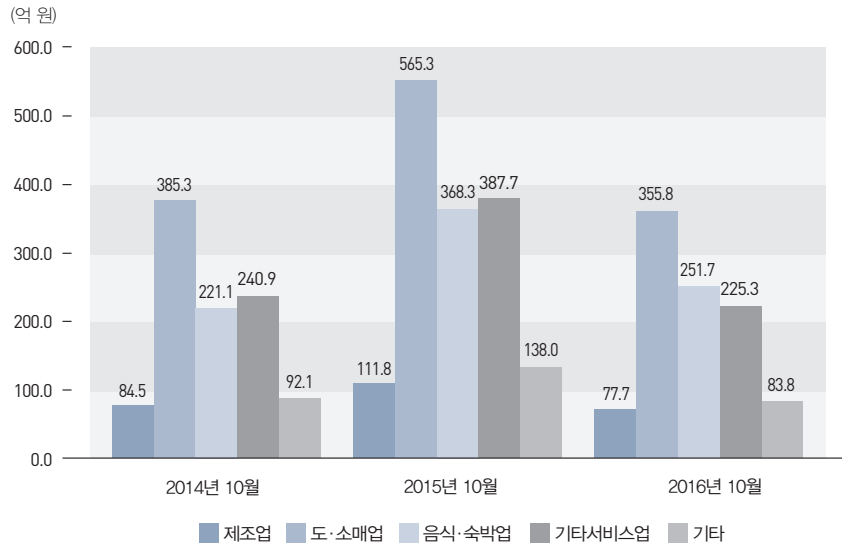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시 신용보증 지원금액과 건당 평균지원금액 추이

전 업종에서 전년 동월 대비 보증지원금액 축소

- 신용보증공급 비중은 금액 기준 도·소매업(35.8%), 기타서비스업(22.7%), 음식·숙박업(25.3%), 건수 기준 도·소매업(33.6%), 기타서비스업(26.4%), 음식·숙박업(25.4%) 순임
- 도·소매업의 보증지원금액은 355.8억 원으로 전월 대비 12.9%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7.1% 감소, 보증지원건수는 1,543건으로 전월 대비 20.1% 증가
- 기타서비스업의 보증지원금액은 225.3억 원으로 전월 대비 18.7% 증가, 전년 동월 대비 41.9% 감소, 보증지원건수는 1,212건으로 전월 대비 19.6% 증가
- 음식·숙박업(251.7억 원), 제조업(77.7억 원)의 보증지원금액이 전월 동월 대비 각각 31.7%, 30.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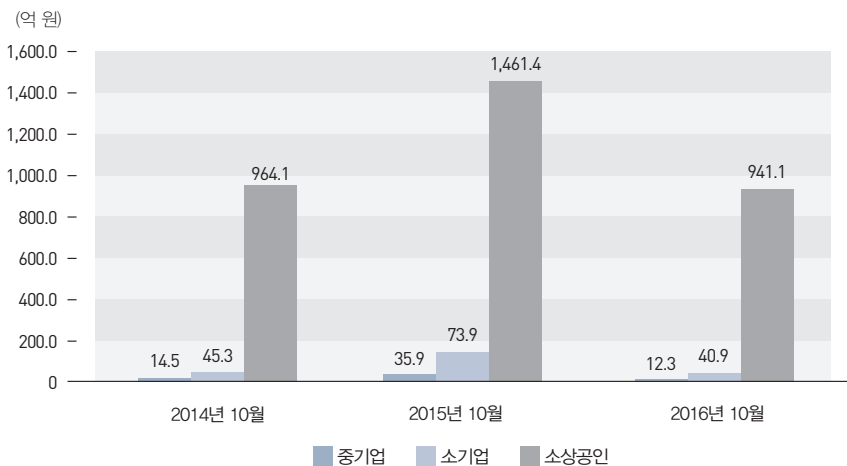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소상공인 보증지원은 전월보다 늘고, 소기업, 중기업 보증지원은 감소

- 소상공인 보증지원금액은 전월 대비 18.3%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5.6% 감소한 941.1억 원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94.6%를 차지. 소상공인 보증지원건수는 4,502건으로 전월 대비 24.3% 증가
- 소기업 보증지원금액은 전월 대비 3.9% 감소, 전년 동월 대비 44.6% 감소한 40.9억 원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4.1%를 차지. 소기업 보증지원건수는 82건으로 전월 대비 9.3% 증가
- 중기업 보증지원금액은 전월 대비 14.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5.8% 감소한 12.3억 원으로 이는 전체 보증금액의 1.2%를 차지. 중기업 보증지원건수는 10건으로 전월 대비 9.1% 감소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경제동향 |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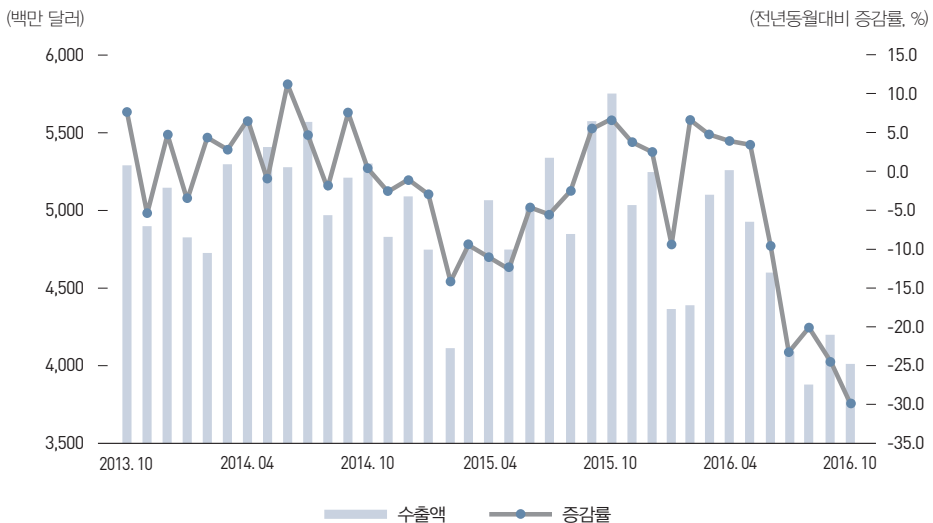
수출입

서울의 10월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감소, 수입은 전년 동월보다 증가

- 서울의 수출은 40.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30.1% 감소하였고, 수입은 117.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9.0% 증가
- 전국의 수출은 419.7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3.2% 감소하였고, 수입은 350.0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4.8%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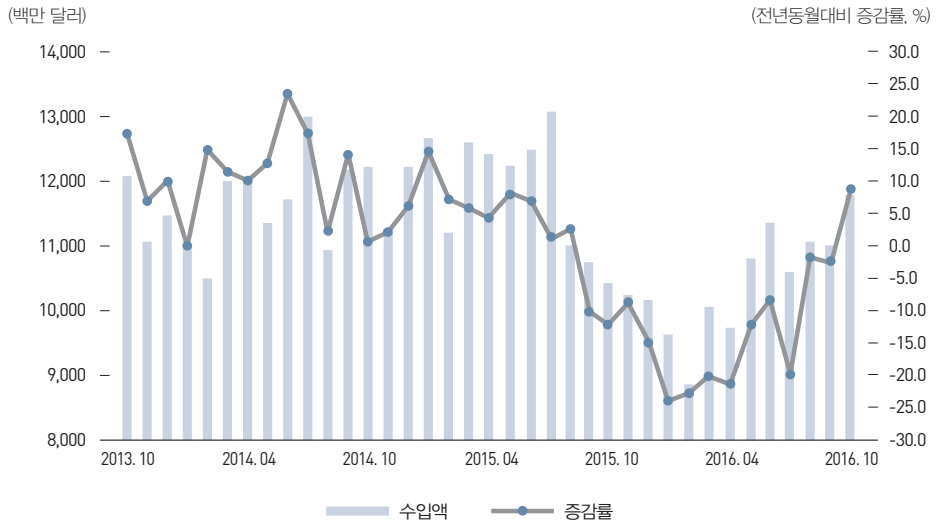
서울의 10월 수출 1순위는 자동차부품, 수입 1순위는 원유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은 자동차부품(407백만 달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반도체, 합성수지, 비누·치약 및 화장품, 편직물 순임. 자동차부품 수출이 전월 대비 12.8% 감소했으며, 반도체, 합성수지, 비누·치약 및 화장품 수출도 전월보다 소폭 감소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은 원유(1,113백만 달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의류, 자동차 순임. 무선통신기기 수입이 전월 대비 209.2% 증가해 크게 늘어났으며, 원유, 반도체 수입은 전월보다 소폭 증가, 자동차, 의류 수입은 전월보다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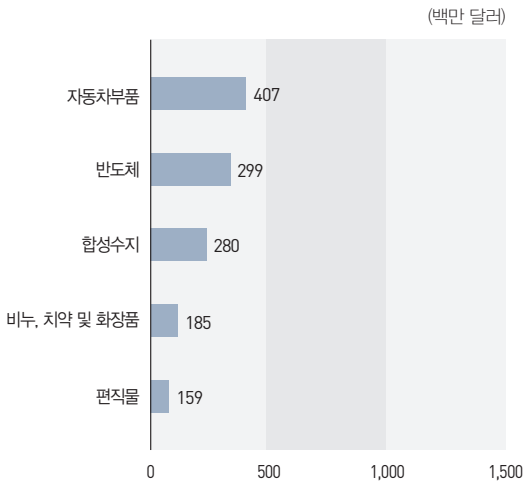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과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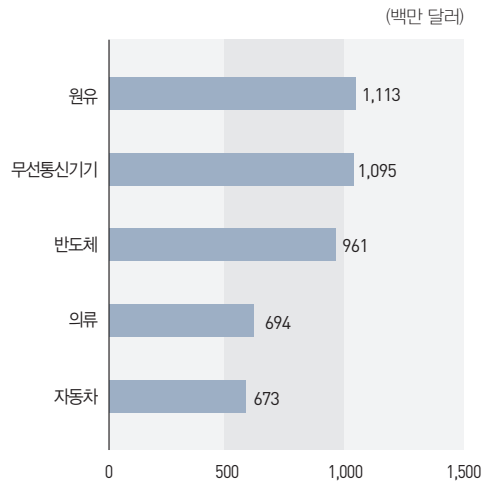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입액과 증감률 추이



자료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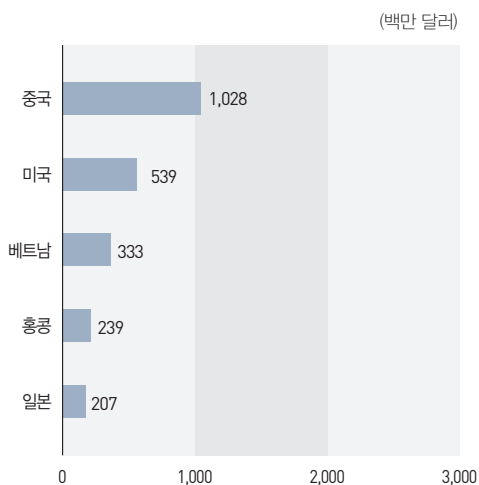
〈그림〉 10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10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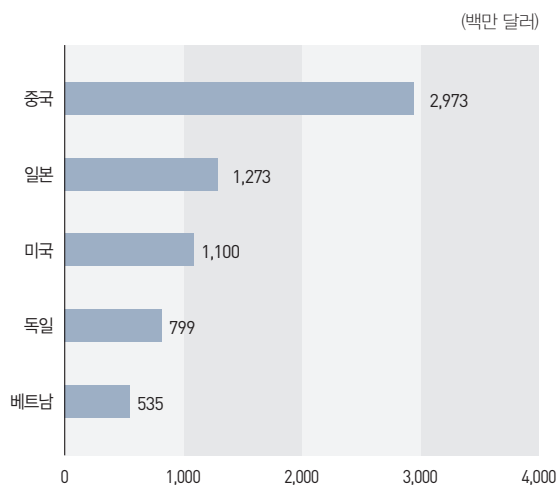
서울의 10월 수출·입 1순위 상대국은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은 중국(1,028백만 달러)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순임. 중국 수출은 전월 대비 1.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2.3% 감소
- 주요 상대국 수출이 전월 대비 감소했으며, 그중에서도 미국, 홍콩, 일본 수출이 전월 대비 각각 12.9%, 17.3%, 14.7% 감소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은 중국(2,973백만 달러)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순임. 중국 수입은 전월 대비 26.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
- 지난달보다 미국(-12.5%), 독일(-3.5%) 수입은 줄었으며, 프랑스(+206.1%) 수입이 크게 확대되어 프랑스가 주요 수입상대국 순위에 진입



자료 무역협회

〈그림〉 10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10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자료출처

- 경인지방통계청, 『2016년 10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 경인지방통계청, 『2016년 10월 서울시 고용동향』
- 경인지방통계청, 『2016년 10월 서울시 소비자물가동향』
- 국민은행, 『2016년 10월 월간 KB주택가격동향』
- 대한민국 법원, 법원통계월보, 『<http://www.scourt.go.kr>』
- 부동산114, 『2016년 10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매매가격』
- 부동산114, 『2016년 10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전세가격』
- 서울신용보증재단, 『2016년 10월 신용보증동향』
-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land>』
- 중소기업청, 『2016년 10월 신설법인동향』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kr>』
- 한국감정원, 『2016년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네트워크, 『<http://stat.kita.net>』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경제통통



FOCUS

- 서울시, 지자체 최초 도시문제 해결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ZOOM IN

- 서울먹거리창업센터, 23개 농식품 유망 스타트업 성장 발판된다
- 가게에는 매출, 청년예술가에게는 경험...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HOT ISSUE

- 장인이 만든 수제화와 디자이너 수제 주얼리로 크리스마스 선물하세요
- 서울이 당신께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 Thanks Giving 크리스마스 마켓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고태경 kotaekyung@seoul.go.kr

FOCUS | 01

서울시, 지자체 최초 도시문제 해결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교통, 환경, 도시개발 등 3대 분야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빅데이터를 분석할 '도시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가 지난 10월 개관한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서울대(차상균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 원장)와 '도시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를 공동으로 협력하는 내용을 골자로 12월 7일(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 빅데이터 분야 거버넌스 구축, 도시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설치

지자체 주도로 서울대와 빅데이터 분야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은 국내 최초이며, 시는 이곳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교육·연구 사업의 핵심 연구소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시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는 2017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빅데이터연구원의 인프라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활용 전문가 양성 교육을 이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일반시민·대학생·취업준비생 등 대상 빅데이터에 대해 기초, 전문가 교육 진행

협약의 주요 내용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과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서울디지털재단과의 공동협력 ▲빅데이터 분야 교육·연구 자문 지원 ▲연구소 운영을 위한 장비, 콘텐츠 등의 사항 ▲기타 양 기관의 상호 협력분야 지원 등이다. 특히, '도시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는 환경·도시개발·교통 등 3대 분야 4개 핵심을 정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는데, ①도시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체계 구축 ②서울시 공기오염원·소음 분포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③도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분석 대안제시 연구 ④교통 패턴 분석을 통한 교통환경 시각화 기술 개발이 그것이다. 또한, 시민과 전문가가 어우러지는 24시간 개방공간인 '개포디지털혁신파크'의 당초 취지에 맞게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대학생, 취업준비생, 실무자,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도 진행된다.

시는 "이번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과의 교육·연구 공동 협력 협약 체결을 통해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관·학 기술 협력의 통로가 마련됐다"며 "지속적 협력을 통해 빅데이터 분야 인재양성과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먹거리창업센터, 23개 농식품 유망 스타트업 성장 발판된다

농식품 산업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여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먹거리창업센터’가 12월 7일(수) 문을 열었다.

**23개 농식품산업 유망
스타트업에 사무공간
무상제공, 멘토링 등
창업지원**

**최장 2년까지 입주가능,
시제품 제작에서
화보 촬영까지
가능하도록 공간 구성**

‘서울먹거리창업센터’는 가락시장 현대화시설인 가락몰 1관·2관 3층(연면적 1,547㎡)에 조성되며, 농식품분야에 특화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과 시제품제작을 겸한 소셜다이닝 공간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서울먹거리창업센터(Seoul Food Startup Center)’를 통해 건강한 식품 요리법 개발, 신선식품 가공방법, 스마트 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한류 식품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3개 입주기업(농식품분야 20개, 디자인 등 이종분야 3개)을 최종선발해 창업지원에 나선다. 특히, 입주기업에는 사무공간(개방형, 개별)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창업 교육 ▲멘토링 ▲컨설팅 ▲투자연계 등 각종 창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며, 6개월마다 성장평가 관리를 거쳐 최장 2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개별 사무실 및 사무집기 제공은 기본이다. 먹거리를 연구하고 아이디어 상품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센터 내에 재료 구입, 시제품 제작, 홍보용 화보 촬영까지 가능한 종합공간인 오픈키친과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공간도 제공된다. 시는 ‘서울먹거리창업센터’가 도시형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촉진하는 중심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국내 최대 물류단지인 가락시장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활용한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서울시가 농식품산업에 혁신과 성장 자양분을 제공하여 고부가가치 상품개발과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ZOOM IN | 02

가게에는 매출, 청년예술가에겐 경험 ...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청년예술가
19명+31개 소상공인
점포와 함께한
8개월간 예술마케팅
콜라보**

**시, 소상공인과
청년예술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2기 참여 예술가
지원 강화**

동네 수퍼, 세탁소, 문구점이나 빵집 등 작은 가게마다 '전담 예술가'가 있다면 어떨까.

서울시는 일 경험과 직업 역량이 필요한 19명의 청년예술가와 점포에 차별화된 디자인을 해보고 싶지만 여유와 방법이 없었던 31개 소상공인 점포가 8개월간(4~12월) 함께 활동한 내용을 담은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전시회'가 12월 15일(목)부터 19일(월)까지 5일간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2층에서 개최되었다.

서울시 뉴딜일자리의 하나로 진행된 1기 『우리가게 전담예술가』는 회화, 판화, 전시디자인 등 시각예술 분야를 전공한 청년예술가와 소규모 매장형 점포를 1대 1로 매칭, 점포주와의 정기적 미팅과 점포관찰을 통해 점포 내·외부 아트월부터 명함, 종이컵·머그컵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점포 맞춤형 디자인을 제공했다.

서울시의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인 (주)에이컴퍼니가 수행한 이 사업에서 청년예술가들은 ▲고객(점포)과의 소통방법을 배우고 ▲예술가의 작업을 상업적 공간에 적용해 보는 경험을 얻었으며, ▲참여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2017년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은 4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간 진행하게 되며, 더 다양한 업종의 점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예술가들도 좀 더 나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우리가게 전담예술가』는 소상공인 점포와 청년예술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업하여 점포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며 “소상공인 점포가 경영개선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인이 만든 수제화와 디자이너 수제 주얼리로 크리스마스 선물하세요

서울시는 침체된 도시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수제화와 주얼리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2016 수제화·주얼리 크리스마스 나눔 마켓’을 12월 19일(월)~24일(토), 6일간(11시~20시)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1층에서 개최한다.

**12개 수제화,
8개 주얼리 업체 참여,
3D 프린터 활용해
발 편한 맞춤형
수제화 주문제작**

‘2016 수제화·주얼리 크리스마스 나눔 마켓’에서는 디자인과 품질은 우수하지만 판로를 찾기 어려웠던 수제화(12개)·주얼리(8개), 총 20개 업체가 참여해 겨울시즌과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수제화·주얼리를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크리스마스 나눔행사 취지에 맞게 참가 업체들도 판매 수익 일부를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다.

먼저, 수십 년 경력을 가진 수제화 장인의 맞춤구두부터 트렌디한 슈즈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을 한 자리에 선보이게 되며, 3D 프린터를 활용해 내 발에 꼭 맞고, 세상에 하나뿐인 신발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맞춤 수제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사랑하는 연인, 고마운 친구에게 마음을 표현하기에 좋은 선물 콘셉트의 주얼리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해외 주얼리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수출전문 브랜드 및 디자이너 주얼리 제품을 크리스마스 나눔 마켓 특별 할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한편, 12월 17일(토)~12월 24일(토),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성수 수제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성수 수제화 우수 디자인을 전시하는 동시에 성수 수제화의 역사, 슈슈마켓 등 성수 수제화 홍보 동영상도 함께 전시한다. 특히, ‘서울수제화아카데미’ 디자이너·MD 과정 1기 수료생들이 다양하고 전문화된 커리큘럼으로 편성된 16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졸업작품전을 개최한다.

**시, 성수 수제화와
주얼리 우수성 알리고,
업계의 경쟁력
확보 위한 판로기회
지속 제공**

시는 “유망 소상공인에게는 판로를, 소외된 이웃에게는 온정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기획하게 되었다”며, “대내·외로 성수 수제화와 종로 주얼리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알리고 판매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이웃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석다조의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HOT ISSUE | 02

서울이 당신께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 Thanks Giving 크리스마스 마켓

연말연시 이웃과 함께 한 해의 기쁨을 나누고, 서로의 고단함을 위로하는 동시에 삶의 의미를 공유하자는 의미가 담긴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이 21일(수)부터 31일(토)까지 11일간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티광장(여의나루역 2번출구)에서 개최된다.

**다양한 메뉴의
푸드트럭 36대와
세상에 하나뿐인
핸드메이드 등
144팀 참여**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의 콘셉트는 'Thanks Giving 크리스마스마켓'이다.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겨울밤 색다른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참여 상인들이 뭉쳤다. 크리스마스의 흥겨움을 더해 줄 다양한 메뉴의 푸드트럭 36대와 핸드메이드 작가 등 144개팀이 모였다.

이번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은 겨울철 수요를 찾기 힘든 소상공인들에게는 판로개척의 기회를, 소비자와의 접점을 찾기 어려운 신규 창업자들에게는 소비자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함으로써 크리스마스 마켓의 나눔의미를 더한다. 이는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만큼 최대한 많은 시민이 따뜻하게 즐길 수 있도록 대형 구조물을 설치해 실내공간에서 11일간 진행된다.

크리스마스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캐롤이다. 7인조로 구성된 밴드가 연주하는 캐롤과 행진곡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하고, 핸드메이드 작가가 강사로 참여해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미니부케 만들기 등 다양한 주제의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시, 소상공인 위한
크리스마스 마켓,
지속 확대해
시즌관광명소로 조성**

시는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은 겨울철 판매처를 찾기 힘든 푸드트럭과 핸드메이드 작가를 위한 시간이자, 한 해 동안 많은 사랑을 받은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운영팀이 서울시민을 위해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서울시의 시즌관광명소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